

2021년 주일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다

# 함께 (Together)

신실한 청지기

## 기도문

주님께서  
주일예배 때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시간 은혜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언행이 성숙 되어 가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준비한  
전하는 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까?  
두렵사오니,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 세광교회 유창진 담임목사

☞,☝: 필자가 첨언, 정리한 글



# 목 차

월	일	제 목	본문	쪽	
1	3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딤편2:5~6	1
	10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행2:41~47	6
	17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5:18~20	11
	24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관점입니다.	롬8:18~28	15
	31		폭풍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8:23~27	19
2	7	소망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행16:25	24
	14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4:14~16	28
	21		나쁜 소식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112:6~7 외	32
	28		답이 없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욥13:15	38
3	7	십자가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	롬3:24~26	44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	고후5:21	49
	21		사탄에게는 패배	골2:15	53
	28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	고전1:18~25	58
4	4	깨진 질그릇의 소망	교회(우리)에게는 자랑	갈6:14)	63
	11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후1:1~7	68
	18		환난 중에서 기억할 것	고후1:8~11	72
	25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입니다.	고후1:12~20	76
5	2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24:14~15	80
	9		가정의 기둥	신6:1~6	85
	16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	신6:6~9	90
	23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느4:13~14	98
	30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고후1:20~22	103	
6	6	깨진 질그릇의 소망	그리스도의 승리에 묶이라	고후2:12~14	108
	13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후2:12~17	113
	20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후3:1~3	117
	27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고후3:4~6	122

월	일	제 목	본문	쪽	
7	4	그리스도의 영광	고후3:6~18	128	
	11	절 대 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고후4:6~7	133
	18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후4:7~12	137
	25		빛이 있으라	고후4:1~6	142
8	1		확장되는 은혜	고후4:13~15	147
	8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고후4:16~18	152	
	15	믿음인가 보는 것인가?	고후5:6~8	156	
	22	사랑 때문에	고후5:9~15	160	
	29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4~17	166	
9	5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고후5:17~21	170	
	12	가장 위대한 교환	고후5:18~21	175	
	19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5:21~6:2	179	
	26	환난에서 기쁨으로의 변환	고후6:4~10 외	184	
10	3	두 종류의 관계	고후6:14~7:1	189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고후7:8~12	194	
	17	부요함 ⇨ 가난함 ⇨ 부요함	고후8:9	199	
	24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고후10:1~6	204	
	31	비교하면서 사십니까?	고후10:7~12	210	
11	7	자랑을 아깁니다.	고후10:12~18	216	
	14	나는 어떤 바보인가?	고후11:16~23	221	
	21	추수감사	우리는 어찌 노래를 부를까?	시137:1~4	228
	28	광주리 고백	고후11:23~33	232	
12	5	절대로~	가시 때문에 아프십니까?	고후12:7~10	237
	12		시험 기간	고후13:5~10	242
	19	성탄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9:2,11:1 외	248
	26	절대로~	나의 과녁은	고후13:11~13	252

1월 3일 주일

## □ 함께 Together 1 :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딤후2:5~6)

### ○ 시작하며

“양들이 흩어지고 있다” 야생의 세계에서 초식동물들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맹수의 공격에 치명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맹수들은 무리를 이탈하여 혼자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냥하기 위해 무리를 흠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신앙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광교회는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소망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망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전등을 아무리 멋지게 준비해도 전등 자체로는 빛을 낼 수 없다. 전기와 연결될 때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가?

### ○ 본 론

####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 개역개정)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1.1. 크고 위대하시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한 분이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실은 크기를 측량하실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평양 바다가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초속 30만km)로 가도 137억년 걸린다는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의 구슬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심, 문제 등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티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십니다.

#### ☞ Tip 빛의 속도로 여행 시 걸리는 시간 (광대한 우주)

- 달궤도: 1초
- 태양계 끝 : 1년
- 우리 은하 끝 : 100,000년
- 이웃 은하까지 : 1백만년
- 현재까지 우리가 지도화한 은하들 : 1억년
- 아직 지도화하지 못한 채 남겨진 영역 : 50억년
- 빅뱅의 잔광 초기 우주에서 온 빛 : 137억년

### 1.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연결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입니다.

(신명기 31장 / 개역개정)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 1.3.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 개역개정)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든 보내주신 메시아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 개역개정)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 깨끗하게 정화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연결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우리는 손만 내밀면 됩니다.

## 2.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된다.

(디모데전서 2장 / 개역개정)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인터넷 세계를 WiFi를 통해서 연결하듯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유일한 방법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Postmodernism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 개역개정)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려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3. 연결을 강화시키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강화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 3.1.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GODTalk를 해야 한다.

Biblebus를 타세요.

#### 3.2.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

리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 기도에 힘쓰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 개역개정)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3.3. 믿음으로 행동하라

(누가복음 8장 / 개역개정)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앞이로다 하신대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은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접촉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미 접촉되어 있다. 사용해야 한다.

## ○ 결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연결하여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1월 10일 주일

## □ 함께 Together 2 : 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행2:41~47)

### ○ 시작하며

오늘날 교회의 모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연결 중 교회와 연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본 론

#### 1. 개인주의와 공동체

초기 미국 사회는 백인들의 공동체와 인디언들의 공동체가 구분되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백인들은 인디언 공동체 마을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사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백인들은 개인주의 사회였지만 인디언들은 공동체의 사회였기에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고립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도 고독 지수가 8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고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고독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에서는 이러한 고독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 현대인 성경)

6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고독한 자에게 가족(공동체)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를 알고,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 우리말 성경)

2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3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4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특징은

①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사셨다.

② 사명을 감당하셨다.

③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 모였다. 즉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대표적이다.

#### ☞ Tip 로마 시대 세리와 열심당원

◆세리 :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 납부하고 이익을 챙기는 자들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앞잡이로 여겨 경멸의 대상이었다.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같은 부류)

◆열심당원 : 유대 독립을 위해 무력 투쟁을 벌였던 자들로 세리와는 완전 정반대 편인 사람들 있었으며 소리와는 서로 적대적 관계였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우연히 부르셨을까 아니다 뜻을 가지고 12공동체를 부르신 것이다. 외견상 이질적인 부류의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구성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공동체의 모본이요,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이질적이지만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왜 이런 공동체를 못 만드는가?

그것은 연결을 잘못하고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다.

## 2. 교회와 연결, 공감대

### 2.1. 연결

이 시대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에 27억명, 카카오톡에 3700만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2.2. 공감대

교회의 공감대는 정치적 성향이나 취미 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12제자들의 공감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공감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 3. 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가?

### 3.1.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1장 / 현대어 성경)

3 ...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딤후 3장 / 새번역 성경)

15 ...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 3.2.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 현대어 성경)

5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 메세지 성경)

10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창세 전에 가지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 현대어 성경)

4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 3.3. 교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 현대어 성경)

20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세계 인구의 1/3이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며, 공동체의 특징인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4. 교회와 연결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벧전 1장 / 현대어 성경)

3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 4.1. 나를 견고히 세운다.

교회와 연결되면 나를 견고히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되 우리 혼자만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여야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 4.2.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교회와 연결될 때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목적을 주셨다. 그 목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다.

## ○ 결 론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팽배한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고 그 공동체 속하고 싶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를 통해 신분 상승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될 때 나를 견고히 세우며,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주일

## □ 함께 Together 3 :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5:18~20, 고후5:18~20)

### ○ 시작하며

이웃들과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들(이웃)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업적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한다. 심지어 남을 해치면서까지 업적을 남기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업적이 될 수 없다.

영원히 변치 않고 기억될 업적이야 진정한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 가족과 관련된 업적!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마가복음 5장 / 개역개정)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하셨다. 그 결과 데가볼리 지역이 변화되었다.

귀신 들린 자는 진정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다.

이처럼 전하는 것이, 이웃과 연결되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 ○ 본 론

#### 1. 누가 우리를 보내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

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 1.1.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썼고 찾은 후 기뻐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이를 위해 오신 것이다.

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고 잃어버리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목자

②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잔치하는 여자

③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논리적으로나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 1.2.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귀신 들린 자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가서 전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짓값을 모두 치러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가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전하라 하셨다. 위 본문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 직분은 사역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직분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 누구에게 갈 것인가?

### 2.1. 관계 동심원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원으로 그려보는 관계 동심원이 있다. 이 동심원 순서에 따라 우선 전해야 한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 ⇨ 직계가족에게 전해야 한다 ⇨ 친지 ⇨ 친구 ⇨ 이웃과 동료 ⇨ 지인 ⇨ 모르는 사람 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가능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방 전도다. 물론 필요한 사역이지만 동심원을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전하기 위해 가야 할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과 화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 개역개정)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울 수 없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 2.2. 그들에게 훨씬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

(고후 5장 / 메세지 성경)

15 그 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 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good life를 원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

(요한복음10장 / 메세지 성경)

10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얻게 하려는 것이다

## 2.3.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다.

(로마서 3장 / 개역개정)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상처와 아픔이 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가서 이 소식(복음)을 전해야 한다.

## 3.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엄청 많다. 그런데 두 가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직분(사역)과 말씀이다.

### 3.1. 직분(Ministry)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

### 3.2. 메세지 (Message)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가복음 5장 / 개역개정)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니 너를 붙잡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 ○ 결 론

이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여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였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것은 변화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돌아간 지역 데가볼리가 크게 변화된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작금의 우리 주변의 선교환경을 보면 이런 우려를 하게 한다.

내가 먼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1월 24일 주일

## □ 소망이 있습니다. 1 : 소망은 관점입니다. (롬8:18~28)

### ○ 시작하며

새 설교 시리즈 “소망이 있습니다”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소망이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진 환자는 치료가 더 빠르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또 소망이 사라진 도시는 폐허로 변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 ☞ Tip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역 시절 수도권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다. 그 부대는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이전을 앞둔 부대였다. 그래서 시설에 전혀 투자하지 않아 한 내무반에 30여 명이 생활을 한다.

보통은 8명 내외 어떤 부대는 3~4명씩 생활하는데 수도권 한복판에 그런 부대가 있다. 그건 그곳에 소망이 없기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재개발 앞둔 마을 개선에 투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

#### ☞ 플래시보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도 생각이 났다.

- ◆ 플래시보 효과 “실제 효과가 없지만 믿고 치료하면 효과를 보는 것”
- ◆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처럼 소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이런 단순한 희망 사항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은 세계관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관점을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관점이 바뀌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 ○ 본 론 : 고난 속에서의 소망의 관점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고통이란 고통은 모두 경험했다고 할 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의 고백을 통해 소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바울은 그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이 넘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본문 로마서는 네로 황제 치하에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을 통해 고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살펴봅니다.

## 1. 고난은 일시적이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난은 일시적이고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고 보면 극복 소감을 영웅담처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위인의 자서전 공통 포함 사항 같음)

코로나 상황이 힘들지만 불과 100여년 전인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훨씬 더 무서웠고 피해가 컸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2천만명이 죽었고, 기록에 의하면 총 5천만명까지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비하면 코로나19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1,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경신 대기근 등. 결론적으로 다 극복하고 지나갔다.

코로나19도 이런 종류의 하나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본문 18절에 “생각건대”는 “분석해보건대”라는 의미이다. 분석해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난에 대한 또한 적절한 표현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우리의 고난은 여행 중에 하룻밤 호텔에서 묵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난은 최고로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 2. 세상은 망가졌다.

(로마서 8장 / 우리말 성경)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21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병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

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도 많지만, 세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망가졌고 죽어 가고 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 3.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었다.

(로마서 8장 / 우리말 성경)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피조물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몸의 속량과 하나님의 영광처럼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 현대인 성경)

24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소망은 한 세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곳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 ☞ Tip 대하사극 드라마 주몽이 생각났다.

드라마의 종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몽이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국 고구려를 건국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편안히 즐길 수 있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 주몽이 알고 있고 소망을 가졌다면 고난이 즐거움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결말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실이요 소망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즐길 수 있지 않은가?

#### 4. (그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망이 있다면 지금 고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십니다.

◆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겠다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핵심은 예외가 없이 ‘모든 것’과 ‘선을 이룬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 도구였지만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를 봐야 합니다.

#### ○ 결 론

이 세상에 고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수많은 고난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겪고 있기에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한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은

첫째, 고난을 일시적이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세상이 망가져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고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넷째, 그렇지만 현재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1월 31일 주일

## □ 소망이 있습니다. 2 : 폭풍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8:23~27)

### ○ 시작하며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었던 성경 속의 상황들을 살펴 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The Perfect Storm”이란 영화가 있다. (2000.8.5 개봉)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과 너무나 같은 영화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사건이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급함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하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앞으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폭풍(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 Tip 갈릴리 호수

- 위치 : 이스라엘 동북부
- 면적 : 160 km<sup>2</sup> (성경에는 호수, 바다로 표기)
- 길이 : 남북 21km, 동서 11km
- 표면 높이 : 해수면보다 209m 낮음
- 수심 : 최고 48m
- 다른 이름
  - \*긴네롯 : 여호수아 11:2, 12:3 (2개소)
  - \*긴네렛 : 신명기 3:17 등 (5개소)
  - \*게네사렛 : 마태복음 14:34 등 (3개소)
- 날씨 : 북쪽의 헬몬산(해발 2814m)과 남쪽의 사해(해발-400m) 사이에 위치해 있어 기온차로 인한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남

이에 예수님은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

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왜 두려움에 지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폭풍(고난) 가운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교훈입니다. 즉, 고난이란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무엇에서 누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 ○ 본 론

### 1. 첫째, 폭풍은

#### 1.1. 피할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 개역개정)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당할 거든 지를 ‘if’로 해석하면 시험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문의 뜻은 ‘만약’이 아니라 당할 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2. 예측할 수 없다.

(마태복음 8장 / 현대인 성경)

24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본문에 주목할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고난은 예고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것이다.

#### 1.3.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마태복음 5장 / 개역개정)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과 비가 모든 사람 악인이나 의인이나 관계없이 비추고 내리듯 고난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던 항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폭풍은 일어났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 2. 둘째, 폭풍 속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진리

### 2.1.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8장 / 개역개정)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분명히 예수님은 풍랑 만난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배에 오르시기 전 낮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폭랑을 만나자 순간 그 능력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 개역개정)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난 가운데 두려운 것은 그 고난보다 나 혼자라는 것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2.2.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마가복음 4장 / 개역개정)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은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항변하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 개역개정)

15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선교사의 비단땀 예화를 기억해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조용하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하며 그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잘 한 것은 그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배에 고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았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계십니다. 우릴 돌보시는 예수님을 찾아 간구해야 합니다

### 2.3.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마가복음 4장 / 개역개정)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람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Quite! Be still!”라고 하시니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 개역개정)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 개역개정)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 개역개정)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이라는 무엇을 보지 말고 '누가'로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 결 론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폭풍(고난) 속에서 세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월 7일 주일

## □ 소망이 있습니다. 3 : 감옥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행16:25)

### ○ 시작하며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뭘 해도 되지 않는 나쁜 징크스가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과 태도는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이란 환경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인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관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네델란드 자전거 회사 VenMoof에서 자전거 포장박스에 TV 모니터를 그려 넣음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TV 모니터로 인식하게 하여 배송 중 파손율을 80%나 줄였다는 예화는 관점이 태도를 바꾸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 본 론 :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점의 변화

#### 1. 첫째, 닫힌 문 앞에서의 관점의 변화 ⇨ 진입금지시 “경로재탐색”으로 보라

(사도행전 16장 / 개역개정)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동쪽인 아시아 지역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마저 막으셨습니다. 결국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인 서쪽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전파됨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입금지”를 만나면 “경로재탐색”을 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 2. 둘째, 불확실성 앞에서의 관점의 변화 ⇨ “전략”을 “목표”와 혼돈하지 말라

(사도행전 16장 / 개역개정)

-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바울은 첫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 회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먼저 세웠던 것으로 볼 때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고 찾아갔는데도 현실은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갔다가 유대인 대신 이방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공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첫 성도로 기록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프로그램대로 진행되었다면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선교전략은 바뀌었지만, 목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목표는 바뀌어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략과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인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회가 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 3. 셋째, 깊은 감옥 안에서의 관점의 변화 ⇨ 이 땅에서 관점을 조정하는 유일한 수단 :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 개역개정)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Inner Cell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할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간수들이 보았고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 자세히는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매몰되어 문제를 바르게 통찰할 수 없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볼 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환경은 예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 결 론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숙한 관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경로 재탐색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전략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략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복음 전파란 목표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관점을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난은 사도행전 9절 16절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성숙한 관점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2월 14일 주일

## □ 소망이 있습니다. 4 :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4:14~16)

### ○ 시작하며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성경 속의 이야기 에스더편입니다. 에스더서는 배경은 BC 5세기경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지역은 물론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를 통치했던 페르시아 (바사)왕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 유대인을 전멸 위기에서 구원한 사건이다.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개 도를 통치하는 초강대국이였다.

### ○ 본 론

#### 1. 스토리

##### 1.1. 하만의 음모 (3장)

에스더서 3장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라고 할 수도 있는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그 음모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사소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받들었지만, 왕궁의 문을 지키던 유대인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명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개만 절하지 않자 이를 핑계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날짜를 정하면서 부림(Purim)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학살의 날을 정했습니다.

##### 1.2. 왕후를 준비시키다. (1장)

에스더서의 페르시아 왕국은 파티로 시작한다. 180일간 파티가 끝나고 after party가 또 7일간이나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왕은 와스디 왕후가 지극히 사소한 자신의 명을 거역한 일로 왕후를 폐하고 에스더가 후임 왕후가 된다.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조카였습니다.

(에스더 4장 / 개역개정)

14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 1.3. 왕후의 잔치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들은 왕후 에스더는 저녁 만찬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게 됩니다.

왕후의 만찬에 초대받은 하만은 기세가 더 등등해졌고 모르드개를 처형할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번민케 하여 역대일기를 보게 하고,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사전에 고발하여 왕을 살렸던 모르드개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에스더 6장 / 개역개정)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르드개가 왕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왕의 명에 따라 모르드개의 길잡이가 되었다가 왕후의 두 번째 저녁 만찬에 초대되어 참석 받았지만, 음모가 탄로 나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형틀에 자신이 달리게 된다.

## 1.4. 부림절

(에스더 9장 / 개역개정)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의 하나이다. 유대 민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날은 하만이 부림을 던져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한 날이었지만 왕의 명으로 하달된 날이라 변개 할 수 없어 대신 유대인들이 먼저 원수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함으로 원수들로부터 구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이다.

## 2.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목적과 섭리를 기억하라

### 2.1. 나에게 해야 할 일(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에스더 4장 / 개역개정)

14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힘든 고난의 상황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다.”(유창진 목사)

### 2.2.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 2.2.1.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계시지 않음)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론 침묵하고 계시지만 존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 2.2.2.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예레미야 29장 / 개역개정/NIV)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

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모르드개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NIV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번영을 위한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뒤편에서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 결 론

에스더는 어찌보면 난데없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으로 강대국 페르시아 왕후 First Lady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후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모르드개의 공적을 역대일기에 기록해 놓으셨고,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하만은 멸하고자 했던 유대인에 의해 진멸되게 됩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끝났다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2월 21일 주일

**□ 소망이 있습니다. 5 : 나쁜 소식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11:6~7, 민13~14장)

○ 시작하며

나쁜 소식인데 소망이 있다?  
쉽게 동의하기 힘든 말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관심하거나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하여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반응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112편 6~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시편 112장 / 개역개정)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BC1450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상반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 나쁜 소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론

1. 사실을 보라

첫째 사실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다.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 개역개정)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젓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정탐꾼들이 탐지한 사실 중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위 본문 민수기 13장 27절은 분명 장점이었지만, 이어지는 28~29절은 단점이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Fact 사실에 대해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 2.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서 보라

둘째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Dan MacAdams 교수의 이론이 있습니다.

◆ 리DEM션 네레티브(Redemption narrative) : 구속(살리는) 이야기

◆ 켄테미네이션 네레티브(contamination narrative) : 오염된 이야기

같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는 살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는 오염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물을 극복시키기 위해 아들을 물 속에 던졌는데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리DEM션 네레티브한 반응은 물의 공포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지만, 켄테미네이션 네레티브한 경우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물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민수기 13장 / 개역개정)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사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0절은 여호수와의 갈렙의 반응으로 이길 수 있다는 반응이고, 31절은 나머

지 10명의 반응으로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물론 모두 본 사실 Fact는 맞았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 개역개정)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삼키는 땅, 메뚜기 같으니” 등과 같이 자신들이 해석을 오염되게 한 것입니다. 켄테미네이션 네레티브입니다.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나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170번 이상이나 말씀하신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The power of bad 즉 나쁜 소식은 오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나쁜 일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일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 3. "믿음"과 "자기 뜻"의 차이를 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을 할 때 믿음의 결과인지 자기의 뜻인지 차이를 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 KJV 흠정역)

44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올라가자 했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 4. 소망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라

넷째 부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모세에게는 아론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세광교회가 되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역모임과 선교회 모임을 통해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 ○ 결 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어떤 주관 을 가지고 왜곡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관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아직도 반이나 있네”하는 사람과 “반밖에 없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Dan MacAdams 교수의 이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해석했으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만 합니다.

40년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왔으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 ☞ Tip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믿음

난 평생 군인으로 37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여리고 성 함락 작전을 세우라고 하면 절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작전계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인간의 어떠한 공도 허용치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여리고 성을 그냥 돌 수 없다. 적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냥 돈다고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지겠는가?

그런데 무너졌고 점령했다. 오직 “믿음”의 결과다

(시편 112장 / 개역개정)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의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소망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세광교회 공동체입니다.

2월 28일 주일

## □ 소망이 있습니다. 6 : 답이 없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욥13:15)

### ○ 시작하며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욥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와 부정한 자들이 잘살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가? 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무수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답 없는 질문에 욥기를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욥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 ◆ 하루는

욥기의 시작은 어느날 하루부터 시작합니다. 욥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하루가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하루를 욥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욥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루 이전의 삶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기 1장 / 개역개정)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 ◆ 비하인드 스토리

욥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을 당시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 개역개정)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충동질하고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꿈에도 몰랐지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에 친구들이 끊임없이 정죄하며 질문을 하지만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욥13:15, 바른성경)

“그 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분을 신뢰하리라...”(욥13:15, 한글킹제임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교구장)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II 목사님은 욥기를 통해 “당신의 믿음은 if(~라면) 믿음인가 / though(~일지라도) 믿음인가?”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though faith” “일지라도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 ○ 본 론

### 1. 고백이 침묵보다 낫다.

첫째는 고백이 침묵보다 낫다. 불평의 말을 하더라도 침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 개역개정)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기 7장 / 개역개정)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앞에서 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었다. 그 고백은 “though faith”였다. 그러면 전혀 불평이 없어야 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though faith였지만, 불평을 했습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욥의 태도를 잘못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귀찮아 하지도 않으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끊임없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 닫고 침묵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 2. 함께 있는 것이 충고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충고하거나 설득시키려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말(?), 교리상으로 맞는 말로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욥 친구들의 말이 곧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 개역개정)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 죄를 지어서

(욥기 8장 / 개역개정)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 믿음이 부족해서

(욥기 5장 / 개역개정)

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 징계받는 것이 복이다.

(욥기 22장 / 개역개정)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럼 복이 있다.

(욥기 15장/ 개역개정)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느냐

이런 충고를 여러분이 받으면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대답합니다.

(욥기 16장 / 현대인 성경)

1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2 이런 말은 내가 전에 다 들었다. 너 희는 모두 나를 위로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이구나!

3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충고와 설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 쉬운성경)

7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8 ~ 너희는 욥과 달리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

욥은 불평하는 말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식 없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교리상으로 맞는 말만 하는 것보다 불평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 3. 관점이 답보다 더 낫다.

#### 3.1. 창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관점

하나님은 욥의 불평에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case by로 답을 주시는 대신 근본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답 내용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욥기 38장 / 개역개정)

-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 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 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 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기 39장 / 개역개정)

-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 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나

(욥기 40장 / 개역개정)

-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 3.2.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욥기 19장 / 개역개정)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가 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 3.3.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

(욥기 42장 / 개역개정)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위업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 ○ 결 론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욥의 불행 그 엄청난 고난에서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전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욥의 고백처럼 Though faith,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고백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불평을 하더라도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해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욥에게 하신 것처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주십니다.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결론은 각자 생각해 보세요^^

3월 7일 주일

## □ 십자가 The Cross 1 :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 (롬3:24~26)

### ○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교구장) 그래서 주일 말씀을 요약하기 시작했고 최소한 한 주간은 묵상하려 노력한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며, 소망이고,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설교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빈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다양한 사양을 갖춘 좋은 전자제품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 성도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이며

사탄에게는 패배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교회(우리)에는 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앞서 사물을 보는 두 개의 관점 세계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사고 즉 하나님 중심의 사고이고, 세상적 세계관은 세상적 사고 즉 사람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는 출발점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적 사고는 삶의 중심이 “나” 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권리,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중심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 사고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자도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고 왜 그러셨을까?

## ○ 본 론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이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게 의로우신 속성 때문입니다.

### 1.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다.

(로마서 3장 / 개역개정)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이란 뜻입니다. 진노한 사람에게 어떤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여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장 / 개역개정)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런데 완전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기에 죄에 대한 진노만으로 끝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이 상대적이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완벽하게 미워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 개역개정)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같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업신여겨서 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세상적 사고로 보면 자신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고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 개역개정)

7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벌을 받으면 되지 만 하나님 사랑의 속성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니다.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레위기 속죄 제사가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지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매번 드려야 하는 일회성 제사였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가 필요했고 그 제물이 그리스도의 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 ☞ Tip 구약의 속죄 제사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의미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시은좌에 피를 일곱 번 뿌렸다. 시은좌는 10계명이 들어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으로 십계명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 죄를 알면서 덮어 주신다는 뜻이다.

## 2.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3장 / 개역개정)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은 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우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죄를 지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고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 3.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다.

(로마서 3장 / 개역개정)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커우퍼가 영감을 받아 작사했다는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중에 라고 합니다.

## ○ 결 론

십자가는 하나님께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신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장대를 신뢰하고 장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3월 14일 주일

## □ 십자가 The Cross 2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 (고후5:21)

### ○ 시작하며

“교환이 일어났다.” 그것도 엄청난 불공정한 교환이 일어났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은 오늘날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그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1626년 인디언 레나페족의 소유였는데 이 섬을 현재 가치로 약 1,000달러인 60월던 만큼의 물품을 받고 네덜란드 상인 페테르 얀스존에게 팔았답니다. 매우 불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교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불공정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교환을 살펴봅니다.

### ○ 본 론

#### 1. 가장 위대한 교환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이고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영원히 그 효력이 유지될 교환입니다.

이 진리가 복음의 심장이고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헬라어로 15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15단어의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 1.1.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 개역개정)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외면의 죄, 혈통의 죄, 원죄 그 어느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빌라도도 증언했습니다.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눅23:22)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양의 속죄 희생은 출애굽기 12장에서의 힘없는 어린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 1.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형벌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 1.3.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가져가고 의가 온 것입니다.

(시편 103장 / 개역개정)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속죄양은 두 마리였는데 하나는 죽여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고,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아사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사라

진 것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일어나고, 수평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전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화목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2.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물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 ○ 결 론

예수님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를 가져가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주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 우리의 죄는 가져가셔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3월 21일 주일

## □ 십자가 The Cross 3 : 사탄에게는 패배 (골2:15)

### ○ 시작하며

지옥의 파티는 삼일천하였다. 금요일 밤에 시작하여 주일 새벽에 끝났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노가 만나는 곳이었고, 예수님께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본 론

#### 1. 첫째,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었다.

(창세기 3장 / 개역개정)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므로 최초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복음 즉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원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최초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려 멸하겠지만 예수님도 상처를 입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발꿈치 정도를 상했지만, 사탄은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삼일천하의 파티를 했을지 모릅니다.

#### 2. 둘째, 사탄의 모든 활동이 파괴되었다.

(요한일서 3장 / 개역개정)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사탄은 멸해졌고 모든 활동이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은 전원 코드가 뽑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3. 셋째,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히브리서 2장 / 개역개정)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죽음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불로장생약을 구하려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릴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 개역개정)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망과 죄와 율법이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화살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 개역개정)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 개역개정)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넷째, 사탄이 무장해제 되었다.

(골로새서 2장 / 공동번역)

15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 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멸했고 예수님은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세 번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행진

갈보리 십자가행진 (Via Dolorosa)

그리고 승리의 행진(골2:15) 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의 행진을 통해 포로인 사탄을 끌고 행진하셨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예수님의 포로에 불과합니다.

#### 5. 다섯째, 사탄은 지금 보석 중이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 세대를 보면 이미 멸망했다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멸했다는 말씀과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고 사탄이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다.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교구장 생각

많은 전쟁사를 보면 종전 직전에 적(敵)은 더 발악하고 인명피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평양전쟁도 그랬고 특히 한국전쟁에서 피해를 보

면 종전 직전에 휴전선 일대에서 서로 땅을 빼앗기 위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더 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에 맞서 다음과 같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 5.1. 굳게 서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 개역개정)

-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세상은 악하다 하며 주저앉고 싶은가? 성경은 굳게 서서 무장하고 싸우라 하십니다. 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싸우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 5.2. 사탄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서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힘 때문입니다.

### 5.3.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 결 론

십자가에서 사탄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부서졌고, 모든 활동이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종노릇 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시고 살아나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죽음을 이용하여 우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무장이 해제되어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행진에 끌려 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이 잠시 유예된 기간에 사탄이 발악하고 있어 우리는 굳게 서서 무장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3월 28일 주일

## □ 십자가 The Cross 4 :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 (고전1:18~25)

### ○ 시작하며

십자가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탄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고 오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연꽃, 유대인의 다윗의 별, 이슬람의 초승달 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상징이 없었고 오직 믿음의 고백만 있었습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전에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ΙΧΘΥΣ)를 그리스도인의 표식처럼 사용하기도 했지만, 글자 이니셜을 형상화한 물고기 모양으로 상징이라기보다 고백이었습니다.

### ☞ Tip 익투스 (ΙΧΘΥΣ)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Ἰησοῦς (예수),

Χριστός (그리스도),

θεοῦ (하나님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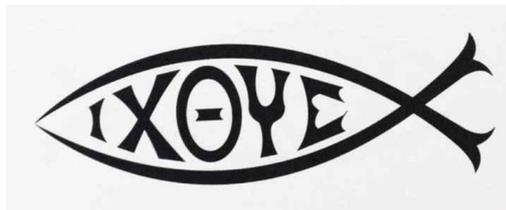
Υἱός (아들) ,

Σωτήρ (구원자)

이 다섯글자의 이니셜을 각각 합치면

I + X + Θ + Υ + Σ → ΙΧΘΥΣ (이크티스, 익투스)

ΙΧΘΥΣ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뜻이 바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313년에 이르러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으로 당연히 십자가는 두렵고 혐오스러운 사형도구였는데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를 세상은 어떻게 볼까

## ○ 본 론

### 1. 첫째,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한다.

(고린도전서 1장 / 개역개정)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에서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지만 세상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Power를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옛 다윗 왕국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관찰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 등을 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했고 참음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약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범신론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하나의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다원주의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모두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매우 싫어합니다.

## 2. 둘째, 세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 개역개정)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된다.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 개역개정)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과 세상의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은 도덕과 죄형법정주의 사고로 눈에 보이는 죄와 법이 정한 죄만을 가지고 죄라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최고급 식당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 개역개정)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한 강도는 자기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강구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멸망했

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 3. 셋째, 세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 개역개정)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 개역개정)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뱀뱀을 보면 낫는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혐오스러운 뱀 모양을 쳐다보면 낫는다. 더욱 이해 불가능합니다.

극혐의 뱀뱀이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 도구입니다. 뱀뱀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 것입니다”

#### ☞ 장대 뱀뱀 사건 (민수기 21:4~9)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을 물어 죽게 하자, 하나님께서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가 살게 되었다. (십자가의 예표하고 요한복음 3장14절에서 말씀)

(요한일서 5장 / 개역개정)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사실을 믿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릴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손을 맞잡으면 예수님의 의에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한자 𡵓을 “의”자를 보면 내 위에 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의입니다.

義(𡵓을 의) = 羊(양 양) + 我(나 아)

## ○ 결 론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세상은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 주간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월 4일 주일

## □ 십자가 The Cross 5 : 교회(우리)에게는 자랑 (갈6:14)

### ○ 시작하며

사도바울의 오직 한 가지 자랑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당대 최고 학자인 가멜리엘 문하생이라는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가진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과할 정도의 영성을 갖추고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사형도구로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돈, 외모, 고급차, 아파트,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향을 미치는 자랑거리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주는 한 가지!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사도바울의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인 이유는 무엇일까?

### ○ 본 론

## 1.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곳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범죄 하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 2. 십자가는 세상이 못 박힌 곳

(요한일서 2장 / 개역개정)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와 흐름 등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에덴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발버둥 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울 것인가? 당연히 더 좋은 것 십자가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사이렌 섬의 유혹을 이긴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 신화는 두 사람 모두 어떻게든 극복을 했지만, 인생은 의지로 극복이 되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오직 십자가만 유일합니다.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십자가”입니다.

#### ☞ 그리스 신화 : 사이렌 섬 유혹을 통과한 두 사람 이야기

##### ◆ 사이렌 섬의 사이렌이란 요부

사이렌이란 섬에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새 모양인 사이렌이란 요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섬 앞을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그 소리에 매혹되어 항로를 잃고 바위에 충돌하게 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통과했다는 신화

##### ◆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다 사이렌 섬을 통과하는데 사이렌 요부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자신의 몸을 묶고 무사히 항해 성공

##### ◆ 오르페우스

사이렌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리를 듣게 하여 사이렌 소리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사이렌 섬을 통과

### 3.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곳

(갈라디아서 2장 / 개역개정)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죄된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강도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 3.1. 첫째,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단지 어려움을 감당하며 따르라는 뜻일까?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죽으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삶입니다. 죽는 삶이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 3.2.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 3.3. 셋째, 십자가를 전하라

(고린도전서 1장 / 개역개정)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지만, 십자가에 영생과 소망이 있기에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 결 론

(요한계시록 5장 / 개역개정)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이러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4월 11일 주일

**□ 깨진 질그릇의 소망 1 :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후1:1~7)

○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은 환난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아니다” 입니다. 오히려 환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그 환난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3대 도시 중의 하나일 만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물질문명은 발달했지만, 향락과 도박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의 문화와 유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향락에 빠진 도시 가운데에도 복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환난 당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은 동정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질그릇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도자기와 달리 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도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환난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 ○ 본 론

## 1. 힘을 내십시오. ⇨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오이크티르모스)는 같이 느낀다 공감한다.라는 동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위로(피라클레세우스)는 치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 개역개정)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져가야 할

## ◆ Take Out 1 :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사야 49장 / 개역개정)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 각 개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멍 뚫린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하십니다.

## 2. 힘을 내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

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밖에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는 치유가 포함된 것으로 강함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시편 23장 / 개역개정)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막대기는 양 떼를 보호하는 무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Take Out 2 :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생을 에덴동산같이 변화시키신다.

(이사야 51장 / 쉬운성경)

3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동산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 3. 힘을 내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고여 썩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같은 요단강에 속해 있지만,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사해 방향으로 흘러보내 항상 살아 있는 호수로 있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음으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 Take Out 3 :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나의 위  
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남을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 결 론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 인생을 에덴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4월 18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2 : 환난 중에서 기억할 것 (고후1:8~11)

### ○ 시작하며

수영선수 ‘플로렌스 채드윅’의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해협 67.59km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 그녀가 LA 해변 카탈리나섬 35.40km 횡단에서 목표 800m를 남기고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를 묻자 “안개 때문에 포기했다. 만일 내가 목표를 볼 수 있었다며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많은 환난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권총으로 자살한 아들을 둔 어떤 목사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었고, 이 일은 도저히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을 이루리라”에 해당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함선을 보고 그 함선의 각각의 조각들은 쇳덩어리로 물에 뜰 수 없는데 서로 연결되고 용접이 되어 함선이 될 때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아들의 죽음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으로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 ○ 본 론

#### 1. 첫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

사도바울은 안개 같은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불치병 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즐겁고 기쁠 때는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고통 가운데는 소리를 치십니다.

## 2. 둘째, 나는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든 환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기에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 개역개정)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순간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날 사랑 하심 날 사랑 하심 날 사랑 하심 성경에 쓰였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내 소망은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있을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 3. 셋째,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라 “함께”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 서로 도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이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를 빙자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교회는 율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우라”는 “쉬뉘푸르게오”라는 헬라어로 “함께 아래에서 받치고 일한다.”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래가 튼튼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 ◆ 기도로 서로 도우라

기도는 환난에서 최초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우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들곤 합니다. “지금도 기도만 하고 있을 때인가 준비를 해야 할 때 아닌가?”

이처럼 기도와 준비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4. 넷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 덕분에 은사를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기도도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인생 고난의 대학은 입학은 어느 날 불현듯 하지만 수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수료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과목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수료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릴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병상련처럼.

#### ○ 결 론

안개 속에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던 채드윅은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깨진 질그릇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4월 25일 주일

□ **깨진 질그릇의 소망 3 :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입니다.**  
(고후1:12~20)

○ 시작하며

이미 깨지고 금이 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단어는 “No”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Yes”입니다. 사람들도 “예”를 좋아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No”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만 됩니다.

고린도교회 상황은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연기되자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불평 불만의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Yes와 아멘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Yes는 헬라어이고,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7천번 이상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는 Yes이고 우리는 아멘이 됩니다.

○ 본 론

1. 첫 번째 :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Yes, 아멘

(요한복음 3장 / 개역개정)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보배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

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 넓이 : 이처럼 사랑하사
- 길이 : 독생자를 주셨으니
- 깊이 : 멸망하지 않고
- 높이 :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 2. 두 번째 :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까? Yes, 아멘

(요한일서 1장 / 개역개정)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가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7장 / 개역개정)

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

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라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 3. 세 번째 :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Yes, 아멘

(예레미야 29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고 번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No라고 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저편 영원한 세계까지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 못과 망치의 이야기

못은 망치에 두들겨 맞기만 하기에 못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망치 두드림이 없으면 못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못도 망치도 사실 같은 목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못이라면 반드시 망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리의 각각의 재료들로는 먹기가 불편하지만 합하여서 요리될 때 맛있는 음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시편 34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4. 네 번째 :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아멘

(이사야 26장 / 우리말 성경)

8 여호와여, 그렇습니다.(Yes, Lord)우리는 주의 공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Yes라는 답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Yes, Lord”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Yes Lord였습니다. 노아, 모세, 아브라함, 마리아, 베드로...

베드로가 물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약속 위를 걸은 것이고 약속을 의심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 5. 다섯째 :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Yes ,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 쉬운성경)

20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Yes),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성경은 Yes로 시작하여 Yes로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Yes)” 이 말씀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세상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웃지만, 성경은 “그렇다(Yes), 내가 속히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 ○ 결 론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Yes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이 모든 물음에 답은 Yes, 아멘이어야 합니다.

5월 2일 주일

## □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1 :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24:14~15)

### ○ 시작하며

5월 한 달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믿음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물질이나 전통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이 이끌어가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이외의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가정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소집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소집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수 24:1)

세겜은 현재 예루살렘 북쪽 49km 위치한 곳으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고 성취된 곳입니다.

### ☞ 믿음의 선진들과 세겜

#### ◆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세겜은 하란을 떠나 첫 번째로 머문 곳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 개역개정)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 ◆ 야곱

야곱에게 세겜은 삼촌에게서 돌아와 첫 번째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

(창세기 33장 / 개역개정)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 ◆ 모세

모세에게 세겜은 그 땅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예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신11:29)

## ◆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세겜은 다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겜에 모인 이유는 캄캄하고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 ○ 본 론

## 1. 기억하라(수24:1~1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 1.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 1.2.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땅과 성과 음식과 열매 그리고 자녀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 1.3.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생활과 여리고 성 전투에서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결단하라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였습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 2.1. 주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경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2.2. 온전히 주만 섬기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 2.3. 우상을 버려라

“버리라”라는 말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의 상징물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의 영적인 존재, 힘과 권력, 쾌락 그리고 바쁨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너무 바빠서 한 시간의 예배 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 2.4. 섬길 자를 택하라

(1)~(3)까지는 공동체 전체에게 한 말씀이라면 (4)는 각 개인의 결단까지를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 개역개정)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선택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공동체과 ‘하나님을 섬긴다’에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 3. 굳게 서 있으라 (수24:16~27)

### 3.1.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만 대답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릴 100% 완전한 사랑을 하시기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표현입니다.

### 3.2. 증거의 돌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이 50여 년 만에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썼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 ○ 결 론

우리는 언약의 자리 십자가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들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섬길 자 즉, 하나님을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택했으니 나야 당연히 포함된 거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5월 9일 주일

## □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2 : 가정의 기둥 (신6:1~6)

### ○ 시작하며

전체화면(Full Screen, 4:3)과 넓은화면(Wide Screen, 16:9)이 있습니다. 전체화면에서는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영역을 넓은 화면에서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체화면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려면 넓은 화면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체화면 삶과 넓은 화면의 삶이 있습니다. 넓은 화면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전체화면의 삶은 경쟁과 이 땅에서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인데 이것을 자녀들에게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화면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성경에서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 ○ 본 론 : 기둥

믿음의 가정을 위해 세워야 할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 1. 첫 번째 “하나님”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기둥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

도들 삶 의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대의 일은 하나님을 조금도 손상이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제삼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 개역개정)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2. 두 번째 “사랑”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 개역개정)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 개역개정)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자녀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의지적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적 표현이 있어야 하고 행동적 표

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2.1. 의지적 표현

사랑의 의지적 표현이란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온 몸에 공급하듯 우리의 마음도 결심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 2.2. 감정적 표현

사랑의 감정적 표현이란 “뜻을 다하여”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인데 의지적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2.3. 행동으로 표현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은 “힘을 다하여”입니다. 노력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14:21상)라고 하십니다.

## 3. 성경적 세계관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 기둥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란 사물을 보는 창문과 같은 것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실체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다음 네 가지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 3.1. 하나님에 대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당연히 믿을 수 없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 3.2. 인간에 대한

세상은 인간이 진화의 결과로 우연한 폭발로부터 시작하여 미생물에서 고등 동물인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조상이 미생물이고 그마저도 우연히 생겨났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 개역개정)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 개역개정)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 3.3. 진리와 윤리에 대한

세상의 진리와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진리와 윤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 3.4.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를 팬데믹 상황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기에 가장 큰 위험처럼 보이지만 팬데믹 상황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만 2500만명 이상이 죽었고(유럽 인구의 1/3 이상), 비교적 최근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2000만명 이상, 홍콩 독감 그리고 콜레라 에볼라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보다 사람에게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나쁜 것 같지만, 유익한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고 해로운 바이러스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라고 한 것은 모양이 왕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 ○ 결 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전체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넓은 화면에서는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진리와 윤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5월 16일 주일

## □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3 :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 (신6:6~9)

### ○ 시작하며

“모르스 부호 예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지만 모르스 부호를 듣지 못해 면접 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달리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모르스 부호를 듣고 합격한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7장 / 개역개정)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면 듣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 ○ 본 론

#### 1. 첫째 : 말씀을 들으라 (신1~6)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마”라 합니다.

### ☞ 로고스와 레마

◆ 로고스 :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물속 물)

◆ 레마 :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레박으로 뜬 물) 로고스 말씀을 듣고 읽지만, 특정 말씀이 특정 사람에게 특별한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합니다.

### 1.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 개역개정)

-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주어 여행객의 필수품이듯 성경은 인생에게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자석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침반에 다른 자석을 두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욕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자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줍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내 사

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충만 ⇨ 성령인도 ⇨ 광야 ⇨ 시험 ⇨ 말씀으로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행복이고 대로가 짝 펼쳐질 것 같지만 정반대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이브는 이 의심에 자기 생각을 말하다 넘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 개역개정)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 개역개정)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2. 둘째 :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긴 사람이어야 합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 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바톤 터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2.1. 삶으로 가르치라

“교황과 유대교 랍비의 대화”

서로의 언어를 모른 두 사람은 바디랭기지로 대화를 했다.

교황이 손가락 3개를 폼다 다시 1개를 펴서 하늘을 향해 원을 그리더니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그랬더니 랍비도 똑같이 따라 했다. 그런데 서로가 대화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서로의 해석은 완전 달랐습니다.

교황 : “3일 이내에 한 사람도 남긴 없이 이 땅에서 나가시오”

랍비 :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런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삶이 존경이 되어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사장을 잘 알아, 우리 아빠는 장관을 잘 알아 하고 자랑할 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알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이블버스, PAT 사역, 코알라 등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 2.2. 감각을 동원하여 가르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플린과 메주자를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을 모두 동원해서 전해야 합니다.

총체적 감각을 동원한 믿음의 표현은 바로 가정예배

### ☞ 테플린과 메주자

◆ 테플린 : 이마와 팔목에 부착한 작은 말씀 상자

◆ 메주자(mezuzah) : 성경구절을 새겨 넣고 접거나 말아놓은 작은 양피지

### 3. 셋째 :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

(신명기 6장 / 개역개정)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요약 펴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십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이  
잘 갖추어진 집입니다.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을 둘러봅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성경책이 있어야 할 서재엔 세상의 온갖 책들만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주방엔  
돈, 학위, 직업, 명성 등의 부끄러운 음식들만 차려져 있습니다.

그거실로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서 만큼은 나와 매일 교제를 나누자."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편 금방 포기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집 안에 있는 오락실에는  
주님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술, 담배, 도박 외에도 (~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 하  
여라."

주님과 모든 방을 다 돌아본 후 최종적으로 침실로 향합니다.

침실엔 우리가 비밀스럽게 여기는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性)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性)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행동으로도 악용을 합니다.

성은 잘못 사용되면 선(善)을 파괴시키지만,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善)을 이루고 또한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상,

주님께선 이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께 속한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방 귀퉁이에 있는 벽장에 몰래 담아뒀던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들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을 탐닉하던 거실을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는 그 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을 합니다.

스스로 집을 관리할 자신이 없기에  
열쇠를 드리며 간청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은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내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리하시고 관리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집을  
주님께서 서서히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가슴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도  
주님이 손을 보실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실에서의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인터넷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사이에  
 주님과의 교제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늘 나를 잊지 않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집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 두느냐,  
 마음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뀌어 지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멩어(Robert Boyd Munger)>

## ○ 결 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할 때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입니다.

5월 23일 주일

## □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4 :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느4:13~14)

### ○ 시작하며

가족들을 훈련하고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 느헤미야 4장 14절과 20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아나콘다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두려워 말라, 인내하라,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탄도 아나콘다처럼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트렸습니다.

우린 가정과 싸워서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 ◆ 절망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 성벽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중 세 번째로 돌아와 성벽 공사할 때 상황입니다. 야심 차게 시작한 성벽 공사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면

### ▪ 외적요인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흠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외적 요인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이들은 귀환하여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분명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역이었는데 비웃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이런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 ▪ 내적요인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적 요인으로는 불평과 좌절이 백성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찬송해야 할 입으로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곤하여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해도 해도 흠무더기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보다 많이 주었지만 그건 생각나지 않고 할 일 태산처럼 남아있는 것만 보여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파괴의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로파괴란 작은 피로가 쌓이면 결국 폭발한다는 뜻

## ○ 본 론

## 1.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하라면서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3장에 불과한 느헤미야서에는 무려 12번이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중에는 4달 동안 한 기도도 있고, 순간적으로 짧게 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하지(기도) 않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 2.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고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현실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 개역개정)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흠무더기의 교훈은 남은 흠무더기가 갑자기 커 보이는 것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3. 셋째,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 개역개정)

10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 ◆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 ◆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 ◆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 ◆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 ◆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은 온전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가정을 위해 싸우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 4.1. 교회+가정 (PAT:부모가 교사다)

PAT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Church Close”라는 현실, 즉 수평적 선교는 성공했으나 수직적 선교에 실패한 유럽교회 실상을 보고, 수직적인 선교인 자녀들에게 복음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발자국이 자녀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발자국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주님

께로 인도하는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 4.2. “싱크 오렌지” (Think Orange, 레지 조이너)

레지 조이너의 싱크 오렌지에서 오렌지색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상징의 색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노랑색과 집을 상징하는 빨강색이 조합되어 오렌지 색이 나온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탈선 청소년들은 부모가 싸움을 멈춘 가정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 ○ 결 론

(느헤미야 6장 / 개역개정)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결국 성벽 공사를 마치고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도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으로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싸워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5월 30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4 :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고후1:20~22)

### ○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2005년 미국 워싱턴 한인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이 분실된 피어슨 판사가 5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인 배상금을 청구한 근거가 “주문 당일 서비스”,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세탁소의 광고에 근거하여 만족을 못 했으니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만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 칭의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 습니다. 이는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 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 단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을 닮아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미래의 단계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이것을 보장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 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보장은 또 뭘까?

### ○ 본 론

#### 1.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심”을 보장하신다. (과거)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 1.1.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게 서 있도록 힘을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위험하여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굳게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 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 1.2. 영적 전쟁을 수행할 힘을 주신다.

(에베소서 6장 / 개역개정)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을 수행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입니다.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 ☞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

- 대상 : 선지자, 제사장, 왕
- 의미 : 기름은 육체에 부었지만, 영혼에 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은 변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10년 넘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 2.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신다. (현재)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 쉬운성경)

22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시던 현재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인치시고”를 쉬운성경에서는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고”라고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서명 날인 하시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인장이 성령입니다.

### 2.1.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신다.

(학개 2장 / 개역개정)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린 다른 이(사탄)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릴 사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며 인을 찍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 개역개정)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장 [개역개정])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탕자는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이었듯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2.2.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에베소서 4장 / 개역개정)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인친 것은 변화지만 하나님의 인친 것은 변화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 탕자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이 변환 것은 아

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아들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그 안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령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 3. 셋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 3.1.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 개역개정)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보증은 영어 번역에는 Deposit 즉 보증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셨는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 3.2. 성령을 주심은 최고의 것이 올 것이라는 약속의 보장이다.

(고린도전서 2장 / 개역개정)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신의 눈과 마음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크로스비의 찬송 가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자” 처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 ○ 결 론

구원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성형입니다. 이미 우린 구원을 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장차 구원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포크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더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온답니다.

6월 6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5 : 그리스도의 승리에 묶이라 (고후2:12~14)

### ○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묶이라”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릴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일까?

사진을 바로잡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인데 사진을 바로잡다 보면, 가상과 현실의 차이를 착각하고 보정된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정체성은 “나는 승리자다” 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승리, 성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 ◆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한다
- ◆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 ◆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공의 조건들이 맞는 것 같지만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두를 만족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본 론

판토테 트리암뷰온티 (πάντοτε θριαμβεύοντι)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승리에 묶여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1. 첫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 현대어 성경)

<sup>14</sup>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

승리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이런 표현은 당시 익숙했던 개선행진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로마시대 개선행진

▪ 대상 : 적을 최소한 5천명 이상을 죽이고 로마군은 피해가 적어야 했으며 전쟁 후 병사들에게 “임페라토르” 즉, 개선장군 칭호를 얻은 장군

#### ▪ 행진

① 향을 피어 행진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바울은 냄새라는 표현을 썼다)

② 군악대가 앞서가며 연주를 한다.

③ 노획물이 들어온다.

④ 포로들이 포박되어 끌려 온다.

⑤ 개선장군과 군사들이 들어 온다.

4번과 5번은 순서가 바뀌기도 했다 한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싸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워졌습니다.

### 1.1.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47 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 2.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 쉬운성경)

14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개선장군의 화려한 마차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장군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 주님 누구시나이까? (행22:8)

◆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행22:10)

이 질문은 우리도 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 행복했고, 예수님께 묶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 개역개정)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승리입니다.

찬송가 494장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494장 3절”

빈손들고 앞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 2.1. 정복자가 되려면 정복당해야 한다.

무엇을 정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죄에 대해 정복자가 되고, 예수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교구장 생각^^)

우리는 주님의 개선 전차에 탑승하여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개선행진에 끌려가는 포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원대로 우리가 개선 전차에 탑승했다면 우린 예수님을 뒤로 하고 우리가 전차를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 3.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에 묶여 있을 때 항상 어디서나 승리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 현대어 성경)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이 향기처럼 사방에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는 13장의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3.1. 승리하는 삶은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전차에 매여 있을 때뿐입니다.

## ○ 결 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판토테 트리암뷰온티”입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는 뜻인데 누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고 그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묶여 있을 때 항상 승리가 보장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개선전차에 탑승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묶여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3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6 :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후2:12~17)

### ○ 시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다”라는 말씀은 옛날 군생활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 감명 깊게 들은 말씀이어서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향기 하면 향수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향수는 1921년에 탄생한 샤넬5가 향수의 대표적일 것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메릴린 먼로가 “전 잠들기 전 N-5(샤넬 5)만을 몇 방울 몸에 걸쳐요”라고 했을 정도로 여자들의 로망인 향수이기도 합니다.

꽃의 향기는 언젠가는 그치지만 사람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여기서 향기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 즉 삶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있습니다.

개선행진의 모습을 담은 한 그림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개선장군으로 모든 인류를 포로로 잡아 구원을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에게 묶여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선교와 전도입니다.

### ○ 본 론

#### 1.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5 우리는 ...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자체는 세상에 풍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분이신데 반해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 개역개정)

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레위기 6장 / 개역개정)

15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지만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옥합이 깨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는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나사로의 집은 얼마나 전까지 죽음의 냄새가 있던 집인데, 생명의 냄새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 개역개정)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 2. 둘째, 우리는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발산한다.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향기가 몸을 뺐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 냄새가 나고, 냄새나는 곳에 있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냄새는 그 존재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 냄새는 성령의 열매로 나온 냄새입니다.

성령의 열매 :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 3.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 3.1. 멸망하는 자들은 거절한다.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에게 다른 냄새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개선행진 첫 번째 단계는 향을 피워 개선행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행진 속에는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개선행진이 끝나면 처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개선행진을 알리는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였습니다.

#### 3.2. 구원을 얻는 자들은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사망의 종노릇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냄새를 믿지 못합니다.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취였지만 믿는 순간 향기로 변했습니다. 바로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는 악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믿은 후 바울은 향기로 변했습니다. 평생을 향기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피혁 공장과 생선가게가 역한 냄새가 나지만 그 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에게도 삶을 지켜주는 향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사람에게서는 악취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냄새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 ○ 결 론 :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 개역개정)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물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내 삶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예수님의 냄새여야 하고 내 삶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이제 세광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광교회는 교회 이름에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멘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마르다 메이어 선교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슬람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17,429 종족(약74억명)이 있는데 지금도 이중 7,397 종족(32억여명)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미전도 종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참여해야 합니다.

## 🔗 마르다 메이어 선교사

간호사로 예멘에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활동을 하다 한 부인의 출산을 도와주어 무사히 출산하게 하였는데, 그 부인의 남편으로부터 허망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남편이 살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마르다 메이어 간호사를 통해 이슬람 신자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아 죽였다”

마르다 메이어 선교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고 그 향기를 통해 그 부인의 삶이 변했고, 이슬람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어이없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녀로 인해 예멘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까지 열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6월 20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7 :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후3:1~3)

### ○ 시작하며

우리는 깨진 질그릇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보장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 네 차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추천서를 부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으로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 ○ 본 론

#### 1. 성공하는 삶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부귀영화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성도수와 교회의 크기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성공한 선교사인가?  
성공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속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한 선교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은 성공한 위대한 선교사이고, 선교의 표본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들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추천서를 부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추천서다”라고 합니다. 변화된 그들이 사도바울 성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가 성공의 요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었기에 너희들이 추천서라고 한 것입니다.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1~3 / 메세지 성경)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신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글썄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전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 2.1. 편지

옛날 편지는 쓰는 펜과 종지와 읽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 즉, 쓰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 2.1.1 펜 : 성령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펜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펜은 먹을 찍어서 쓰는 도구인데 성령님의 생명의 먹을 찍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써나가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 2.1.2. 종이 : 우리의 마음

종이나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 삶에 쓰셨습니다. 첫 율법은 두개의 돌판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쓰신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실 수 없습니다.

#### 2.1.3 읽는 사람 :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 2.1.4. 서명 : 그리스도

지금은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이 맨 뒤에 나오지만, 두루마리를 사용했던 당시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서명이 맨 처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게 됩니다.

### 2.2. 메시지

(사도행전 1장 / 개역개정)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편지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2.2.1. 경고

(히브리서 9장 / 개역개정)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에는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적을 막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하는 역할입니다. 비록 적이 쳐들어와도 경고를 했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 개역개정)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첫 번째 메시지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 2.2.2.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 개역개정)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모든 일)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2.2.3. 초대

(누가복음 14장 / 개역개정)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 세 번째는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 잔치를 모릅니다.

이들이 우리의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잔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알게 되고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초대장의 역할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 2.2.4. 사랑

(요한복음 13장 / 개역개정)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편지, 네 번째 메시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기가 순수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 ○ 결 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완성된 편지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판에 쓰고 계십니다.

(오해하면 안 됨, 이미 쓰신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계속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쓰신 것은 이미 완벽하지만, 현재 상황 상황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우리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두면 성령님께서 쓰실 공간이 없게 됩니다.

편지의 목적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경고할 책임만 있지, 막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인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십니다.

6월 27일 주일

**□ 깨진 질그릇의 소망 8 :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고후3:4~6)**

(고린도후서 3장 / 개역개정)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시작하며**

깨진 질그릇의 소망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체성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확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확신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 즉 자기 확신과 외부로부터의 확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대해 먼저 살펴봅니다.

**○ 본 론****1. 자기 확신**

(빌립보서 3장 / 개역개정)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첫 번째 확신은 자기 확신입니다. 이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신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강조하고 계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은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신뢰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왕을 배출했다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바리

새인이었으며,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런 사도바울이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한테서 나오는 확신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아래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고까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 메시지 성경)

12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 소결론 : 자기 확신은 진정한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버려야 할 확신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참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 2.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두 번째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오는 확신으로 이러한 자기 밖도 두 경우가 있습니다.

### 2.1. 확신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오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 개역개정)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밖으로부터 확신의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인데 성경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확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2.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데서 온다.

(에베소서 3장 / 개역개정)

12 우리가 그(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밖으로부터 확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데서 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참다운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결론 : 참다운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참 확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확신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확신

#### 3.1. 첫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3.2. 둘째, 나는 의롭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린 의롭지 못하다는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릴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린 의롭게 되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 3.3. 셋째,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15:31하) 라고, 그런데 왜 네 것처럼 쓰지 않았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필요할 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수1:3)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사용할 때 능력이 됩니다.

### 3.4. 넷째,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 개역개정)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7장 / 개역개정)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부어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 ○ 결 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확신도 참다운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참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1.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힘만 들지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힘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기에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 개역개정)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7월 4일 주일

## □ 깨진 질그릇의 소망 9 : 그리스도의 영광 (고후3:6~18)

### ○ 시작하며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유혹!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다.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관한 생각은 때론 잘못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술법입니다. (출애굽 한 백성이 작은 고난 앞에서 애굽에서 고기와 부추 먹던 시절이 좋았다고 과거를 회상한 것처럼, 그러나 그 시절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는데 그것은 잊고…)

과거의 향수에 젖는 것은 현재 힘들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 본 론

#### 1.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영광 : 율법과 은혜

(고린도후서 3장 / 개역개정)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과거의 영광은 율법이고, 현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과거의 영광 즉 모세의 영광,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과거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율법으로 잠시 빛났지만, 현재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 2. 과거의 영광은 율법 조문 : 죽이는 것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은 다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려 3천명이나 죽이셨습니다. 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때 3천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 개역개정)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즉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 개역개정)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 3. 현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 : 살리는 것

(고린도후서 3장17~18절 / 메세지 성경)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이제 오래되고 견고한 율법이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인해서 빛납니다.

### 3.1. 첫째 :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주의는

- 1)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2) 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 3) 형식적이고 규정하며 속박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 1)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합니다.
- 3) 우리 마음이고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 ☞ 영화 더 미션의 “로드리고 멘도자”를 보고...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용서받고자 부족민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담은 보따리를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갔지만 부족민들은 찾아오는 그를 이미 용서했고 그 보따리를 줄을 끊어 죽을힘을 다해 가져온 ‘보따리가 쓸모없다.’ 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죄의 짐을 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 3.2. 둘째 :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 마스크(수건)를 벗으라

(출애굽기 34장 / 개역개정)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주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 개역개정)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입니

다. 모세는 사라질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은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감추기 위해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담은 깨진 질그릇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랑이나 열등감 같은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깨진 질그릇은 쓸모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그 빛이 새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3.3. 셋째 : 주를 닮게 된다 ⇨ 우리는 보는 것을 닮는다.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27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은 점점 닮아가 결국 완전하게 닮게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은 지키는 것이 좋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보면 닮아집니다.

닮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 ○ 결 론

과거의 영광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에 이제 율법 조문에 얽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영광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영광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첫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므로 그리스도처럼 살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그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7월 11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 : 깨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고후 4:6~7)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 시작하며

시각 장애자였던 “레이”가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 레이는 눈이 보이지 않자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호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잡다한 소리에 매몰되면 엄마의 호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질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 ○ 본 론

#### 1. 첫째, 나는 평범한 빈 질그릇이다.

“나는 무엇을 담기 위한 질그릇이다.” 이는 매우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흠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4장 / 개역개정)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라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만드신 목적은 나를 장식용이 아닌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릇은 그 내용을 담을 때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도자기입니다. 이 그릇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존재가 목적인 도자기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물그릇이나 화분입니다.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얼 담기 위해 만드셨는데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담겨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없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100년 1000년 후에도 중요한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빈 그릇의 필요성은 엘리사와 남편이 빛만 남기고 죽고 두 아들만 남은 과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 빈 그릇에 한 병 남은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고 빈 그릇이 다 차자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빈 그릇을 더 준비했으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 2. 둘째, 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주신 것은 일곱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전제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 ☞ 일곱 가지 전제

- 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 ②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 ③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 ④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 ⑤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 ⑥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 ⑦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 2.1. 예수님을 닮는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우린 결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I가 구부러져 C가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I(나), C(Christ,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3. 셋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 개역개정)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강력한 세상의 권력자나 저명한 철학자, 박식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 어부를 택하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그릇들입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 같은 사람도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무디는 미국 대륙을 뒤엎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이런 말을 들은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온전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깨진 그릇은 하나님의 빛을 더 드러냅니다. 깨진 질그릇을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더 빛이 드러나게 합니다. 깨진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 ☞ 기드온 300용사와 횃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대군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모은 3만2천명 중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300명만 택하여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 밤중에 미디안 백성들을 포위하고 항아리를 깨뜨리자 횃불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횃불을 보고 미디안 군대는 자신들이 포위된 줄 알고 스스로 공격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자멸하게 됩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그 안에 빛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 ○ 결론

(고린도후서 4장 7절 / 메세지 성경)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세지는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장식용 도자기가 아니고 무얼 담아야 하는 평범한 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데 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안전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 ☞ 두 개의 물동이 이야기입니다.

우물에서 물지게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동이는 금이 가서 물이 새어 버려 집에 왔을 때는 물이 절반도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온전한 물동이는 금이 간 물동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물동이는 주인에게 나를 버리라고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금이 간 물동이에게 “네게 흘러나온 물 때문에 한쪽 길가에 꽃이 피어났단다. 나는 금이 가서 물이 새어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단다.”라고 했다.

7월 18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 :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후4:7~12)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전까지 24:0으로 지고 있던 팀이 27:30으로 승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또한 넘어져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도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닮은 깨진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깨지는가?

### ○ 본 론

#### 1. 피할 수 없는 고난

##### 1.1. 사방으로 옥여썸을 당한다. ⇨ 그러나 싸이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썸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린 경제적, 코로나19, 육체적 등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세상이 옥여썸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싸이지 않습니다.

##### 1.2. 답답한 일을 당한다. ⇨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상황, 세례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최고의 칭찬을 하셨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푸신 선지자인데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도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13:15, 한글킹제임스 버전)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런지 궁금증을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 1.3. 박해를 받는다. ⇨ 그러나 버린 바 되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가 쫓아 왔습니다. 성도는 때론 육체적, 정신적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이 깨지게 합니다.

### 1.4.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경기 중간의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 2.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 2.1. 십자가 ⇨ 부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버린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 2.2. 죽음 ⇨ 생명

죽음이 생명이 되는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2.3. 모든 것(나쁜 것) ⇔ 선(Good)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공식은 모든 것 나쁜 것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 3.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공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의하면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행복이 목적이면 고통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 3.1. 첫 번째 :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최고 최악의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결국 물고기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와 같은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축복의 시작입니다.

### 3.2. 두 번째 : 고난은 하늘에 집중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인생이 전부라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시각과 청력을 모두 잃었던 “헬렌 켈러”!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녀는 이런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음의 램프가 꺼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다른 삶(하늘나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 3.3. 세 번째 : 고난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한다.

(빌립보서 3장 / 개역개정)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고난 가운데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 ○ 결 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죽음이었던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 심지어 나쁜 것까지 사용해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합니다.

고난은 질그릇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질 때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속이 빈 콜라 캔은 외부 압력에 쉽게 찌그러지지만, 속이

차 있는 콜라 캔은 외부 압력에도 견디게 됩니다.

우리는 속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 개역개정)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 / 개역개정)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7월 25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3 : 빛이 있으라 (고후4:1~6)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 ○ 본 론

#### 1.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라 할 수 있는 10가지를 살펴봅니다.

- 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 ② 죄의 용서
- ③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하는 것
- ④ 죄로부터 구원
- ⑤ 죄의 노예에서 해방
- ⑥ 지옥으로부터 건짐
- ⑦ 천국에 가는 것
- ⑧ 영생하는 것
- ⑨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것
- ⑩ 새 하늘과 새 땅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나 이상의 열 가지는 복음의 궁극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궁극

적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자리는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췌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명을 주신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 2. 복음이 막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추게 되는데 왜 좋은 소식인데 막힐까?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신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일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덮는 일입니다.

## 2.1.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말을 그래서 죄인이란 말을 그들은 제일 이해를 못 합니다.

## 2.2. 예수님에 대해 수건을 덮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고 많은 성현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 2.3. 사탄의 역할을 교묘하게 숨김이다.

그러나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중력의 법칙 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의 통치안에 있습니다.

## 3. 복음이 비추다.

복음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 개역개정)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과 무질서의 세계에서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이전의 삶은 죽음이고 이후의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사도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을 받기 전 사울은 화려한 삶처럼 보였지만 죽음의 삶이었고, 빛을 받은 이후의 삶은 고난의 삶처럼 보였지만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노예상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복음의 비침을 받은 우리가 할 일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우린 아무 할 일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행22:8~10)

- ◆ 주님 누구시니이까?
- ◆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사도행전 26장 / 개역개정)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디모데후서 2장 / 개역개정)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 결 론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어떤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인데 복음의 빛이 막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이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비침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8월 1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4 : 확장되는 은혜 (고후4:13~15)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 “놀라운”, “충만한”, “한량없는” 등 많은 형용사가 있는데 오늘은 확장되는 은혜에 대해 살펴봅니다.

1929년 허블 망원경으로 미국 카네기 천문대에서 빛을 관찰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허블 법칙이라 합니다.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기에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뱀으로 재신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 개역개정)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뱀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의 은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처럼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 당시 세계 인구가 3억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충분했던 은혜가 현재 78억의 인구에도 충분하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은혜(more and more grace)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더욱 많은 찬양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4:15,메세지 성경) 감사합니다.

### ○ 본 론

#### 1.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 개역개정)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 2. 우리는 현재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 쉬운성경)

1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가? 결코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는 현재의 은혜 안에 견고히 굳게 서 있습니다.

## 3. 우리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6장 / 개역개정)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3.1. 미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

미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미래의 은혜가 확정되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 영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more and more gr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장래의 은혜는 이 순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장래의 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은혜는 믿음으로, 과거의 은혜는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일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일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서신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도 보면 은혜의 인사로 시작하여 은혜의 인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첫인사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to you로 현재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너희와 함께” 즉 with you로 앞으로 계속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은혜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확장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 개역개정)

-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과거의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에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은 미래에 받을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처럼 호혜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으니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은사는 선물로 번역하는 버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시 받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소 오해를 하는 것은 찬송가 가사 영향이 큼니다.

찬송가 28장과 311장 가사 참고

28장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311장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 주느냐”

과거의 받은 은혜를 갚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로, 미래의

은혜는 믿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미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 3.1.1. 임재의 약속 ⇨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 개역개정)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바울에게는 무언지 모르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이고 확장되는 은혜입니다.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 3.1.2. 공급의 약속 ⇨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한다.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하며 자신의 힘으로 모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지고 있으니 필요 없겠구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3.1.3. 선하심의 약속 ⇨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시편 23장 / 개역개정)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안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승패를 모르는 경기를 볼 때 지고 있다면 긴장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지고 있는 장면을 봐도 오히려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이처럼 보장하시기에 비록 고난이 닥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 개역개정)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 결 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확장되는 은혜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미래의 확장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8월 8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5 :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고후4:16~18)**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여 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착시현상으로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착시현상 그림을 클릭하면 같은 그림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착시현상이 없는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 론**

**1. 첫째, 몸과 영혼의 다른 점을 본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 개역개정)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 **겉사람** : 몸은 낡아지고 결국 죽는다.

겉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생로병사에 따라 늙어가며 결국은 죽게 됩니다.

◆ **속사람** :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원히

속사람은 영혼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시 충전을 의

미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 개역개정)

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골로새서 3장 / KJV 흠정역)

10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매일 채워야 새로 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 2. 둘째, 환난의 실체를 본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육신의 눈에는 환난 자체만 보이지만 영의 눈에는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면 그 실체의 두 가지가 보입니다.

### 2.1. 이 땅에서의 환난은 일시적이다.

태풍이 요란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환난은 일시적입니다. 환난이 지나간 다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This too shall pass)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 짤 야이 보르” 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반지에 기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 개역개정)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2.2. 이 땅에서의 환난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서 아주 가볍다.

사도바울이 당한 환난은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고난을 수없이 받았는데 그 환난이 하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고 하늘 영광은 중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망원경으로는 멀리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는 작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3.1.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일 사라질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 개역개정)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라질 것에 달란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 3.2.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열왕기하 6장 / 개역개정)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겁에 질린 사환에게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 ○ 결 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크리스찬 구필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45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유명한 구필화가로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약)

“내가 탄 휠체어는 하늘나라에 가져가고 싶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비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고통을 느꼈으며,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함을 느낄수록 주님만 강하게 의지했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환난에서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8월 15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6 : 믿음인가 보는 것인가? (고후5:6~8)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겉사람만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 개역개정)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 한 부류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 개역개정)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신령한 사람은 언제 되는가? 믿을 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고린도후서 ‘믿음으로 행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 개역개정)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 ○ 본 론

### 1.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펴봅니다. 첫째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은 본성이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배워야 한다.

보는 것 (오감)으로 걷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걷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이 크고 작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고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진정 믿음으로 살게 된다.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대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경험 즉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 2. 둘째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분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은 내 능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행하여 실패를 경험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브 :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 :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게 보여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모세 :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보면 ...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는 대로 행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분에게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찬송가 440장 통해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 3. 셋째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5감을 의지한다.

믿음은 5감을 초월하여 신뢰하는 6감이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감을 통해서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2+2=4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5감을 초월하여 신뢰하는 6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설명이 필요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다 합니다. 믿음은 초월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듯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 4. 넷째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은 인생이 밝을 때 가능하다.

인생이 캄캄할 때는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 개역개정)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우고 성장케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캄캄한 암실에서 사진이 인화되듯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 ○ 결 론

믿음으로 걷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5감을 초월하여 신뢰하는 6감입니다.

인생이 지금처럼 캄캄할 때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영화 인디아나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해리슨 포드는 아버지 손 코네리가 준 책을 믿고 성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막다른 절벽에 봉착했을 때 책에는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뎌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믿고 발을 내디뎠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있어 건너게 된 장면이 나온다.

존스가 아버지 책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책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존스 이야기는 영화이고 픽션이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논픽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막다른 절벽에 봉착했을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 돌아갈 것인지...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첫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22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7 : 사랑 때문에 (고후5:9~15)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지구가 공전하듯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바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동기를 알려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동기와 맞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 본 론

#### 1. 인생의 최고 목적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 개역개정)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최고의 과녁,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목적에 대해 사도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재물, 학위, 명예, 평안하고 행복한 삶에 두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인생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 즉 삶으로 산 제사(예배)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라는 말은 이런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못된 동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삶의 동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 2.1.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동기 중에는 첫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을 주는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기에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게 되어 힘만 듭니다.

이러한 결과는 혹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눅 들어 벌 받을까 무서워서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 2.2. 죄책감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되새김하며,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엄청난 잘못이며 생명력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2.3. 인정받기 위함

세 번째는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나 좀 봐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그 이상으로 지켰고 금식하고 시장에서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 좀 봐 달라”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서는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6:16)

###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으로 바른 동기는 무엇일까? 좋은 동기, 더 좋은 동기, 최선의 동기가 있습니다.

#### 3.1. 좋은 동기 : 하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좋은 동기는 믿음의 눈으로 상급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미래에 상이 있음을 믿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Marla Runyan” 시각 장애인 선수가 있었는데 일반 선수와 경주를 하여 우승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었다. 그리고 결승선이 보이지 않지만, 결승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는 시상대입니다. 거기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2. 더 좋은 동기 :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시편 147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좋은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란 공경하는 마음과 그 능력의 크고 위대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장 / 개역개정)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6장 / 개역개정)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할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 3.3. 최선의 동기 : 사랑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메아리처럼 계속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 ☞ Tip συνέχω 쉬네코 (강권)

쉬네코는 메아리(echo)의 어원이라고 한다. 즉 강권이란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권면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창진 담임목사님)

사도바울은 20대 후반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62세 때까지 온갖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은 교회밖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위와 같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감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 개역개정)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지만, 순종만으로 사랑을 낳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에너지와 생명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순종하면 메마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니스탄이나 미얀마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 결 론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 엘리스 공주이야기

자신의 딸을 위해 감염될 줄 알면서도 딸에게 입맞춤해 주고 결국 감염되어 본인은 죽고 딸은 후에 치료되어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 🔍 Tip 앨리스 공주

1843년 출생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차녀로 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필립 공의 증조모가 된다고 한다.

디프테리아에 걸린 딸을 간호하던 중 어린 딸의 “엄마 키스해 줘”라는 말에 입을 맞추면 자신도 감염될 줄 알면서도 딸을 위해 키스를 해 주었고 결국 감염되어 1878년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키백과)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위한 삶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여야 합니다.

동기 중 최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8월 29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8 :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4~17)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변화를 원하시는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변화는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실망하시어 버리신 후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즉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면의 변화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주변까지 변화시킵니다. 외모는 순간은 변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영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바울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변화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여 새로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 본 론

#### 1. 첫째,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진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목적으로 살게 하는데 새로운 목적이란 우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였으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형 내과 수술을 받고 변화되어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두 개의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 ◆ 질문#1 주님 누구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질문입니다.
- ◆ 질문#2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삶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후 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 2.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진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전에 육신에 따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했습니다. 차별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출신, 학벌, 외모, 재산 등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종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에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정론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 3.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새로운 Identity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며 순간적으로 방향이 달

라진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최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체성 중 영원까지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 뿐입니다. 사탄은 이 고백을 못 하게 하고 대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할 일이 없다.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성경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 4. 넷째,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속성(성품)을 가진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7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반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의 통치는 지나갔지만, 속성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순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해와 달을 기준으로 24시간인데 해와 달은 4일째 창조하셨기에 하루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닙니다. 얼마나 긴 시간의 하루인지는 모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4장 / 개역개정)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 결 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Identity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

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은 즉시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오는 내면의 변화 즉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종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월 5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9 :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고후5:17~21)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돕고 있는 한 분이 계시며 또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다 무너지는 회사들을 많이 봅니다.

우린 가장 중요한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예배, 교회당 건물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성경공부 등 이 모든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 ○ 본 론

#### 1. 첫째 : 우리는 사명(직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즉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분(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에서 시작하여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의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전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가진 사명, 직분입니다.

## 2. 둘째 :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직분을 그리스도의 대사 자격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 2.1. 우리는 대사로 외국 땅에 산다.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은 외국이라 할 수 있고 대사로서 주재국인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Tip 대사

대사란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외교관의 직급은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서기관이 있고, 주재국의 비자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영사관과는 구별된다.

대사관은 한 곳만 있지만, 영사관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고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나눈다.

(빌립보서 3장 / 개역개정)

19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입국 절차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민권자는 그냥 통과합니다. 우리도 우리 본국에 들어갈 때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 2.2. 우리는 대사로 우리의 왕을 대표한다.

대사는 본국의 왕을 대표합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사가 본국과 다른 주재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국의

뜻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대사를 통해 하늘나라를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릴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 3. 셋째 : 우리는 전할 메시지(말씀)를 가진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대사는 대사관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재국에 나가서 본국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합니다.

#### 3.1.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5:18)

화목은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목해야만 함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 개역개정)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 3.2.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셨다. (고린도후서 5:1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 3.3.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

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적으셨다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내가 사용하지만, 나의 계좌에서 결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짝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 3.4.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대사는 자신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국에서 하라고 한 말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 4. 넷째 : 언제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 ○ 결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사명 즉 직분을 받았습  
니다.

그 직분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관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전해야 할 메시지도 주셨는데 메시지는 지금 당장 전해야 합니다

1.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4.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9월 12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0 : 가장 위대한 교환 (고후5:18~21)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열토당토않은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상한 교환은 1626년 맨해튼 섬의 거래입니다. 맨해튼 섬은 네덜란드 상인 피터르 안스존이 미국 원주민 인디언으로부터 약 24달러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런 교환이 가능했던 것은 맨해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거래가 불공정하고 이상한 거래였는데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교환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린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의 중심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에 대해 교리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 ○ 본 론

1.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은혜로 교환하셨다.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은혜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BC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살던 죄인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 1.1. 교리 :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 개역개정)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은혜의 표현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무얼해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1.2. 나의 반응 :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심에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기뻐했다.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심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 2. 둘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용서로 교환하셨다.

(이사야 53장 / 개역개정)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죄를 씌우셔서 우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 2.1. 교리 :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릴 대신하여 죽으셔서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옥이란 ①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며 그 순간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②지옥은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③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두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 2.2. 나의 반응 : 나의 죄의 값이 갚아진 것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우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 3.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의의 옷으로 교환하셨다.

(이사야 64장 / 개역개정)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1장 / 개역개정)

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냇마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옷을 가져가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다시 입혀 주셨습니다. 결혼식 예복보다 더 아름다운 옷입니다.

### 3.1. 교리 : 믿음으로 의롭게 됨

(로마서 5장 / 개역개정)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 3.2. 나의 반응 :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주의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가능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 ○ 결 론

전무후무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환은 BC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은혜로 교환하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로 교환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의의 옷으로 교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의인답게 삶으로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월 19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1 :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5:21~6:2)**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혜택,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약한 표현입니다. 나이가가라 폭포의 물줄기를 물방울, 그랜드캐니언을 도랑, 아마존강을 보고 개천이 흘러간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그 생명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해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부하는 순간 거위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증거요 산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려 버린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 본 론

## 1. 첫째, 나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 개역개정)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할 때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사도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로마서 7장 / 개역개정)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amazing)하는 것은 자신이 악한 죄인(wretch)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 2. 둘째, 잘못된 행동을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디도서 2장 / 개역개정)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

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1. 지나친 자유

(유다서 1장 / 개역개정)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 “지나친 자유”입니다.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까지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죄와 은혜를 함께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 쉬운성경)

12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표어가 있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짓기 싫어합니다.

## 2.2.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4장 / 개역개정)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나친 자유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죄책감으로 사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젖만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교회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주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 2.3.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자유나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자연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 3.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베드로후서 3장 / 개역개정)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정도만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장과 성숙의 모델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교차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도와 말씀이고,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교제와 전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교제하며 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 이 4가지가 성장의 목표입니다.

#### 4. 넷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2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현재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매 순간 상황마다 주십니다.

Now and Here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받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 ○ 결 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행동(지나친 자유, 율법주의)

성장하는데 실패함으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기도, 말씀, 교제, 전도)해야 하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9월 26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2 : 환난에서 기쁨으로의 변화**  
(고후6:4~10, 7:2~7)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환난에서 기쁨으로 변환시키는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변화는 변환의 의미입니다. 환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지독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와 다른 슈퍼맨이 아니고 성경의 주요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당한 문제에 그들도 직면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난의 원인과 기쁨으로 변환되는 비밀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 론

1. 환난의 원인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

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바울이 당한 환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먼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고, 외부의 물리적 핍박과 환경으로부터 인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했고 심지어 뒤쫓아 와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갈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당할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네 번째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 자체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상 4가지가 사도바울을 통해서 본 환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기쁨의 비밀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4 ...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6 그러나 ... 하나님이 (But God)

환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도다”라며 기쁨의 비밀을 발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초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환난 가운데 다음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 2.1. 환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하라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후서 1장 / 개역개정)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

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시편 46장 / 개역개정)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하라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우리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최초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가 아닙니다. 24-7-365가 되어야 합니다.

#### ☞ 24-7-365

하루 24시간, 한주 7일, 일 년 365일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숫자

## 2.2.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라

(시편 94장 / 개역개정)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기쁨을 찾으라 하십니다. 다윗은 발이 미끄러지고,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난에도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단순하고 작은 것이 커다란 환난으로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환난을 보지 말고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 2.3. 환난 가운데서 친구를 찾으라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도바울에게 디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잠언에서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 2.4. 환난 가운데서 교회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며 교회의 모습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권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주어야 할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 ☞ 권하여 (παρακαλέω 파라칼레오)

“권하다”라는 말은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 ○ 결 론

환난에서 기쁨으로 변환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과 믿음의 동역자 친구 찾으며,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환난은 옆친데 덮치고, 설상가상,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장미의 가시를 보지 않고 꽃을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 개역개정)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는 기쁨 게임놀이 폴리아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Pollyanna 이야기

1913년 엘리너 포터가 쓴 소설이다. 주인공 폴리아나가 가상 마을에 살기 위해 떠나는 고아의 “기쁨 놀이” 이야기다.

기쁨 놀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될 무엇을 찾는 것이다. 폴리아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원했지만, 목발을 받았다. 목발이 필요 없는 그에게 목발 선물은 기분이 상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폴리아나는 “이런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0월 3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3 : 두 종류의 관계 (고후6:14~7.1)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맺어야 할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맺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목사님 짝 신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는 원자력과 같습니다. 원자력의 힘은 매우 유익하고 엄청난 힘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 ○ 본 론

#### 1. 세상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

첫째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받을 갈게 하지 마시오.”라며 소와 나귀에 한 멍에를 메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아 불편하고 영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맺지 말아야 할 것과 맺으면 불편하고 기름과 물과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멍에를 메지 말라”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 1.1.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과 분리되라는 뜻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명예를 메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일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보트와 같습니다. 물과 함께 있지만, 보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1.2.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고린도전서 5장 / 개역개정)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명예를 메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원에서 도를 닦는 수도사가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합니다.

## 1.3.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을 피하라는 뜻이다.

(고린도후서 6장 / 메세지 성경)

14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둘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의 절친한 벗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손잡고 거니신다는 말입니까? 믿음과 불신이 손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명예를 메지 말라는 것은 “분리나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연합하는 것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연합은 뜻을 같이하고 방향이 같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앞세우거나 방향을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연합의 대표적인 것은

결혼과 동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지만 결혼했다면 헤어지지 말라 합니다.

동업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2. 하나님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역동성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벤 후퍼 이야기입니다.

### ☞ 벤 후퍼 이야기

미국 테네시 작은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벤 후퍼는 심한 멸시와 열등감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훗날 테네시 주지사가 되어 취임 연설할 때 자신은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은 날이 제가 다시 태어난 생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2.1. 하나님(아바)아버지의 약속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1 ...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 2.1.1.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약속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지만 19절에서는 “너희 몸”이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를 믿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 2.1.2. 친밀한 교제를 약속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동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동행이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행해야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 2.1.3. 끝없는 돌보심을 약속

(고린도후서 6장 / 개역개정)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끝까지 돌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능력이 제한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 하십니다. 우

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과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0장 / 개역개정)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 결 론

잘못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뎠지고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세상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 개역개정)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다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4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고후7:8~12)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용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의 ABC에 대해 살펴봅니다.

### ○ 본 론 : 회개의 ABC

(누가복음 15장 / 개역개정)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 1. 첫 번째, 죄를 인정 (Admit, 知)

(요한1서 1장 / 개역개정)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의 첫 걸음을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행동으로 범한 죄 ② 행동하지 않은 죄, 다시 말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예를들어 사랑하지 않은 것,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모두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범한 것만을 죄로 생각하기에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은 죄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 2. 두 번째, 슬퍼함 (Be Sorrow, 情)

(고린도후서 7장, 쉬운성경)

- 10.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슬퍼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지적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로 나아갔기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죄를 지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2.1. 세상의 슬픔

세상의 슬픔은 슬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의 슬픔은 거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가롯 유다의 후회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뉘우쳤지만, 자살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 개역개정)

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 2.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고린도 교인들의 슬픔과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슬퍼함이 머물지 않고 회개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 개역개정)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 2.2.1. 죄를 미워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 개역개정)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첫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 2.2.2. 깨끗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메세지 성경)

11.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 2.2.3.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이끈다.

(고린도후서 7장, 메세지 성경)

9...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슬픔을 그냥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 3. 세 번째, 방향 전환 (Change Direction. 意)

(고린도후서 7장, 쉬운 성경)

10.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 개역개정)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방향 전환입니다. 베드로, 바울, 누가복음의 탕자 모두는 방향을 180도 전환하여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변화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Tip 뉘우침 즉 후회와 회개

뉘우침(후회)과 회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뉘우침(후회)는 “메타멜로마이”(μεταμεληθεῖς)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회개는 “메타노에오”(Μετανοεῖτε)로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 ○ 결 론

필립 안시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1998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출판협의회에서 “놀라운 은혜”(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라는 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인 딸은 아버지를 떠나 마약 소굴에 빠져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수없이 망설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40명까지 나와서 Welcome to home을 환영했고 아버지의 딸로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와는 다릅니다.

죄를 미워하고, 깨끗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10월 17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5 : 부요함 ⇨ 가난함 ⇨ 부요함 (고후8:9)**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그리고 다시 부유함으로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부유했으나 실패하여 가난하게 되었지만, 다시 부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 Tip 커넬 할랜드 샌더스 이야기

1890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출생

1920년 석유대리점 주유소 사업 시작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무일푼이 됨

1930년 새로운 주유소 사업 시작

주유소 내 카페 운영 사업 대성공

1939년 레스토랑 화재

1941년 샌더스 카페를 다시 세워 사업을 시작했으나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이 급감으로 경매 처분됨

1945년 65세에 독자 개발한 11가지 허브 비밀 양념을 개발 1008개의 식당을 찾았으나 거절되고 1952년 1009번째 시도 끝에 미국 솔트레이크시의 레스토랑 운영자 피트 허먼에게 인정받아 라이선스 인수하고 그의 조언에 따라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KFC)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그의 얼굴이 모든 매장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90세에 사망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 개역개정)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

은혜는 전적으로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 은혜의 값이 무엇이고,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 본 론

### 1. 첫째, 은혜의 값 :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부요함을 포기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 개역개정)

9. ...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늘의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가난해 지셨습니다. 공짜는 값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도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값을 지불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요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 1.1. 그의 부요함 :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부요함을 누리셨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포기하신 부요함은 얼마나 큰 부요함이었을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요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요8장58절 참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요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요하셨는지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 개역개정)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골로새서 1장 / 개역개정)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 1.2. 그의 가난함 :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 / 개역개정)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가난해 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곳이 없어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마 8장20절 참조) 세금 낼 돈도 없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 에드워드가 예수님의 닮은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요함에서 가난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 부요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요함에서 가난해 지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 개역개정)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 2. 둘째, 은혜의 결과 : 예수께서 나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8장 / 개역개정)

9.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함에서 가난함으로

우리는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 2.1. 나의 가난함 :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하여 나의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 개역개정)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5~6절 / 메세지 성경)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누더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난하면서도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 우린 절대적인 가난이었습니다.

## 2.2. 나의 부요함 :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부요함을 누린다.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받은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무리 귀한 것도 변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받은 증거 네 가지

### 2.2.1. 끊어지지 않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창조주의 상속자입니다.

(요한1서 3장 / 개역개정)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 2.2.2. 끝나지 않는 생명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 개역개정)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2.2.3.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내 지각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2.2.4. 허물어지지 않는 집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 결 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받은 나의 부요함은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2.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3.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4.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집,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10월 24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6 :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고후10:1~6)**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미음도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신앙적으로 미숙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를 향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는 싸움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가치 있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바로 알아야 하고 知彼知己, 百戰不殆 우리가 가진 능력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참고^^손자병법 제3편 모공(謀攻)**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 不知己 每戰必殆

우리가 통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고 전쟁에서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다.

1.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2.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일승일패한다.
3.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패한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적과 나를 잘 알고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과 나의 전투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 본 론

### 1. 첫째, 적 : 사탄의 견고한 진 (요새)

#### 1.1. 적(사탄)이 세운 요새로 거기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우릴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견고한 진, 요새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사탄은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릴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 개역개정)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견고한 진은 사탄의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파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 1.2. 마음속에 뿌리 박힌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은 마음속에 뿌리 박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한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사회적 진입니다.

사회적 진은 만연되고 있는 물질 만능, 퇴폐문화, 음란, 동성애, 다원주의, 마약 등등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이 적입니다.

#### 1.3. 나에게 있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는 무엇인가?

개인적 진도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으로 분노, 두려움, 절망, 위선, 복수, 자기연민, 탐욕, 중독, 시기 질투 등등의 쓴 뿌리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 2. 둘째, 나 : 하나님의 능력(무기)으로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공격하라 (고후10:4~5, 엡6:10~20)

우리 혼자 힘으로 이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워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를 모두 주셨습니다.

## 2.1. 방어용 무기들 :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 개역개정)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

방어용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가지입니다.

### 2.1.1.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 즉 말씀이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1.2.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마음의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의가 마음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 2.1.3.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 2.1.4.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우리보다 훨씬 커서 사탄의 불화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 2.1.5. 구원의 투구

투구는 피아를 식별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무너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쓴 투구는 우리가 하나님 편임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 2.2. 공격용 무기들

공격용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 2.2.1.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로고스

(히브리서 4장 / 개역개정)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과 비교할 때 로고스의 말씀은 칼집에 꽂혀 있는 검, 레마의 말씀은 칼집에서 나온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레마

(에베소서 6장 / 개역개정)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삶을 시키고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로고스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던 한 여성도가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간증에서 시편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 / 개역개정)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2.2.2. 기도

(에베소서 6장 / 개역개정)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격용 무기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사역해라”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기도를 멈추면) 패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 ◆ 수행해야 할 임무

(고린도후서 10장 / 개역개정)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워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진, 개인적인 진을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 결 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과 아군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마음속에 도둑처럼 들어와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군의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를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예 믿음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10월 31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17 : 비교하면서 사십니까? (고후10:7~12)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SNS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비교하는 것이 거의 사람의 본성 같기도 합니다. 비교가 때론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자아가 개입되면 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이 아벨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입니다.

현대인들은 비교병을 앓고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 좋은 것을 속히 끊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합니다.

성경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지혜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 ○ 본 론 :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병이다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의 병입니다. 이 비교병을 치유하려면 증세를 알고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 1. 비교병의 증세

##### 1.1. 시력이 흐려진다. : 겉(외모)만 보고 속(중심)을 보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0장 / 개역개정)

#####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

첫 번째 증상은 시력이 흐려져 겉모습만 보이고 진짜 중심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정작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외모지상주의로 뷰티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에서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을 버렸다 하셨고, 용모가 준수했던 다윗의 형들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면서 소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 개역개정)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1.2. 심하게 붓는다. :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교만이다.

(빌립보서 2장 / 개역개정)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비교병의 두 번째 증상은 자아가 너무 부뿌러 올라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으나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 1.3. 발작을 일으킨다. :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비판한다.

비교병의 세 번째 증상은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비교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이 중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으로 쉽게 그리고 자주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결국 자신의 장점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의 소유자는 늘 “못한다. 사양합니다.” 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타고난 천재 모차르트와 노력하는 범재 살리에르 이야기입니다.

살리에르는 오로지 노력으로 궁정 악장으로 성공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

하고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망했다.

“왜 저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을 주지 않고 그 천재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나요? 왜 저에게는 열정만 주시고 재능은 주지 않으셨나요?”

모두가 모차르트처럼 천재가 될 수 없는데 살리에르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다 결국 살리에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을 망쳐버립니다.

## 2. 비교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 2.1. 처방 1 : 당신이 하나님의 독창적이고 유일한 창조물임을 기뻐하라

(시편 139편 / 개역개정)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병에 대한 처방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비교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비교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독창적이고 유일한 창조물임을 기뻐하라” 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존재에 대해 완벽한 작품이다.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 ☞ 나의 기도

“내가 가지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필요가 없어 장식품이요 사치품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존의 필수품이 될 수 있사오니, 저에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필요한 달란트만 주시옵소서!”

## 2.2. 처방2 : 당신의 약점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장점을 인식하라

두 번째 처방은 약점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장점을 인식하라 입니다.

약점은 나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장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2.3. 처방3 : 다른 믿는 자들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동료)로 관계를 맺으라

세 번째는 다른 믿는 자들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관계를 맺으라 입니다. 만약 약한 다를 골라낸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 ☞ 손가락 유머^^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각자 자기가 최고라면 자랑을 했습니다.

엄지 : 힘이 제일 세다.

검지 : 가르킬 때 지시할 때 사용한다.

중지 : 제일 길다.

약지 : 반지를 낄 수 있다.

그러자 소지 즉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가 없으면 버스이야“라고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필요없다고 없애버리면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요즘 원팀(One Team) 이라는 말이 많이 합니다. 하나의 팀이라는 말이지요. 승리하는 Win Team이 되기 위해 우리는 원 팀이 되어야 합니다.

## 2.4. 처방4 :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자아를 두라.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처방은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자아를 두립니다.

사람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그것들은 변화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제자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마저도 비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와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4절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6절 “베드로는 따라와서”

8절 “먼저 갔던 제자들”

베드로 역시 21장에서 요한과 비교합니다.

21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다를 뿐 똑같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다른 라인을 보지 말고 주님의 바라보며 나의 라인을 따라 경주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 결 론

성경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병의 증세는 걸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며 교만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최고 최선의 명義이신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임을 기뻐하라

약점을 걱정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라

다른 믿는 자들과 경쟁자가 아닌 동료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아를 두라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처방에 따라 살기만 하면 비교병은 완쾌됩니다. 아니 완쾌되었습니다.

11월 7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8 : 자랑을 아깁니다. (고후10:12~18)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질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음을 알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 자체가 가장 크고 귀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비교병은 이런 본질적 자랑은 잃어버리고 세속적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바울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자랑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자랑과 해야 할 자랑 그리고 미루어야 할 자랑입니다.

### ○ 본 론

#### 1. 하지 말아야 할 자랑 : 나 자신에 대한 자랑

(예레미야 9장 / 개역개정)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위대함을 적게 말할수록 더 좋게 여겨지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자랑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1.1.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머리, 학벌, 학위 등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 1.2. 나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힘을 믿고 자랑하다 망했습니다. 힘의 자랑은 폭력으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힘은 물리적 힘, 권력의 힘, 지위의 힘, 관계적인 힘 등 수없이 많습니다.

### 1.3.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자신은 상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bye by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쉽게 떠난다는 뜻이겠지요.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이 너무 많아 걱정(?)인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니다. 하나님은 부자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10장 / 개역개정)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라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 2. 해야 할 자랑 :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다면 해야 할 자랑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9장24절과 시편 34편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 개역개정)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34편 / 개역개정)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 2.1. 하나님을 아는 단계

### 2.1.1. 1단계 : 나 자신의 하나님을 만드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생각 속에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만듭니다. 경험과 사건 등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양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교통경찰형도 있고, 맥가이버 형도 있고 할아버지 형도 있습니다. 생각 속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 속의 하나님은 잊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 ☞ 생각 속의 하나님^^

- ◆교통경찰형 :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
- ◆맥가이버형 : 무엇이든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 (ATM기형)
- ◆할아버지형 : 존재는 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나님

### 2.1.2. 2단계 :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초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초대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관계는 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초대했습니다.  
“오라, 돈 없이 젖을 사라,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초대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 개역개정)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2.1.3. 3단계 :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단계

(창조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3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답을 묻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창조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3. 미루어야 할 자랑 : 그리스도의 날에 할 자랑

미루어야 할 자랑은 그리스도의 날에 할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기에 지금은 아껴야 합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경주 중에 자랑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끝나고 승리 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때 자랑하기 위해 지금은 자랑을 아껴 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 개역개정)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1. ...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 ○ 결 론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는 자신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나귀의 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나 힘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 개역개정)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1월 14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9 : 나는 어떤 바보인가? (고후11:16~23)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 즉 fool 바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80여 번이나 바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지혜롭다. 하는 자는 진짜 바보이고, 자신을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해 바보(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본문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할까?

어떤 바보가 되어야 할까? 살펴보겠습니다.

### ○ 본 론

#### 1. 첫째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 개역개정)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47%, 일본은 31% 그리고 우리나라도 15% 정도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의 종류도 다양한데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실천적) 무신론자도 문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 ☞ 실질적(실천적) 무신론자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자를 말한다. 주일날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구애됨이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 개역개정)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신론자란 사실 현재까지 무신론자이고 결국 언젠가는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때 믿으면 너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둘째 :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 / 개역개정)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두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 바보라고 하셨는가? 육신의 평안만 생각하다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육신의 평안함이 영의 평안으로 착각해서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 2.1. 어리석음 공식

#### 2.1.1. 물질의 풍요가 성공이다.

첫째, 어리석은 자들은 “물질의 풍요가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로 얻은 풍요가 곧 성공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성공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라 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것이 성공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 개역개정)

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0장 / 개역개정)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2.1.2. 많이 가질수록 편하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많이 가질수록 편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음이 자신을 옥죄게 합니다.

로마 속담에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귀영화를 누린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 2.1.3. 혼돈

셋째, 어리석은 자는 “혼돈, 착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혼돈하고, 영혼과 몸 그리고 영원과 시간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 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다시 말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자신이 주인인 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

는 것입니다.

### ② 영혼과 몸

영혼과 몸은 다르며 준비할 것도 다른데 몸 즉 육신을 위해 준비하면서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몸이 편하면 영혼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 ③ 영원과 시간

인간은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만 주어졌는데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고 영혼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3. 셋째 :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4장 / 개역개정)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어리석은 자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 / 개역개정)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문법과 철자가 틀릴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도자로 남았습니다.

### 3.2.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

(사도행전 4장 / 개역개정)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저 정도면 할 수 있는 상황이야 했던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세상 물질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합니다.

### 3.3. 조롱과 핍박을 견디는 자

(마태복음 5장 / 개역개정)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 하십니다.

### 3.4.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마가복음 8장 / 개역개정)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전투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으면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가 있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 짐 엘리엇 선교사 순교 이야기

짐 엘리엇은 1927년에 태어난 1956년에 순교한 에콰도르 선교사이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에콰도르의 원시 살인족인 와다니(아우카) 부족의 소식을 듣고 장래가 촉망한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된다.

생명이 위험한 선교지로 자원한 아빠에게 어린 아들이 “아빠, 만약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총을 쓸 거예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쓸 수 없단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그들 일행 5명이 탄 경비행기가 불시착하고 그들은 와다니족에게 발각되어 참혹하게 창에 찔려 순교를 했는데 그들 5명은 모두 권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총을 소지한 것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엘리엇의 부인으로 이어지는 헌신으로 부족은 엘리엇의 희생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 부족은 복음을 받아 드렸고 엘리엇을 죽였던 “키모”는 부족의 최초 목사가 되었으며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만인 1992년 순교 현장에서 신약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 ○ 결 론

나는 어떤 바보인가? 세 가지 유형의 바보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보이고

두 번째 바보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란

1.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2.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3. 조롱과 핍박을 견디는 자입니다.
4.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입니다

11월 21일 주일

## □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까 (시137:1~4)

### ○ 시작하며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감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David Steindl Rast”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감사하라!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많이 원하거나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갖지 않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감사하기 때문이다. 감사하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감사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신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찬양을 할 생각을 못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벨론 사람들이 찬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아냥댁니다.

### ☞ 이스라엘의 역사 요약

1. 족장시대 : 아브라함 ~ 야곱
2. 애굽시대 : 요셉 ~
3. 광야시대 : 모세, 출애굽 후 40년
4. 정복시대 :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5. 사사시대 : 기드온, 삼손 등 12명의 사사
6. 통일왕국시대 : 사울, 다윗, 솔로몬
7. 분열왕국시대 :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
  - 북 이스라엘 : BC 721년 앗수르에 멸망
  - 남 유다 :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감
8. 포로시대 : 본문은 이 70년간의 포로시대 이야기입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 ○ 본 론

### 1. 감사와 찬양은 강요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

(시편 137편 / 개역개정)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감사와 찬양을 강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찬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온 존재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 놓고 찬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 한 사람에게 두 속성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라며 감사를 요구하면서 정작 눈물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도 찬양과 같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신세 한탄하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강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환자가 진찰을 위해 옷을 벗고 의사 앞에 환부를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11 / 현대인 성경)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들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나의 계획이 다 있다.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1차 독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29절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 2.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있는 곳(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 개역개정)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힘들니까 감사할 수 없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 3.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다

(시편 77편 / 개역개정)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 하리이다 12.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편136편 / 개역개정)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모아 놓은 성경입니다. 이런 시편에 찬양할 수 없다는 137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시편 150편이 성경에 수록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편 중 먼저 150편을 선정했을 것이다. 아마 찬양할 수 없다는 137편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입니다.

그다음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이때쯤 힘들어 찬양할 수 없다고 할 것을 아시고 이곳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136편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37편으로 이어집니다.

#### ☞ 시편 136편 요약

- 1~5 :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며
- 6~15 :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며
- 16~22 : 정복과정을 기억하며
- 23 :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을
- 24 : 대적에게서 건지심을 기억하며
- 25 : 먹을 것을 주심을 기억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 ○ 결 론

감사와 찬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울어야 하고 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있는 곳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주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0 : 광주리 고백 (고후11:23~33)**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를 알아보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바울 이야기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한 사람이 잘 적응하면서 살다 구조되었는데 무인도에 움막 3개가 있었다고 한다. 무슨 움막이냐 물으니 “하나는 사는 집, 하나는 현재 다니는 교회, 하나는 전에 다녔던 교회”라고 대답을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닌 현상을 말해주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뱀이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1.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하며 교묘히 바꿉니다.

3. 하나님 말씀에 부인하게 합니다. 선약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그런데 죽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주리의 고백입니다. 광주리에 담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광주리 사건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 고린도 교회 사건보다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리 사건을 통해 실패를 극복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리는 히브리어로 “테바”(תֵּבָא) 라고 하는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갈대 상자와 노아방주를 말할 때 “테바”라고 표현했다. 이는 Basket Case 와 같은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Basket Cas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기력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은 2차 대전 당시 부상한 병사를 광주리에 담아 옮기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광주리에 담긴 부상 병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무기력한 상황을 말할 때 Basket Case라고 한다.

## ○ 본 론

### 1. 하나님을 섬길 때 :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며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 ◆ 주여 누구이시니까?
- ◆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도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 1.1. 공격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

(고린도후서 11장 / 개역개정)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은 먼저 공격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사도바울은 39번 맞는 채찍을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 돌에 맞고, 세 번 파선 ...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 1.2. 염려로부터 오는 내부의 압력

(고린도후서 11장 / 개역개정)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음은 염려로부터 오는 내부의 압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인데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 2. 실패했을 때 :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으라

(시편 37편 / 개역개정)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으라 입니다. 사도바울은 20년 전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신했던 이유는 사도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되었고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 갇혀 있다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실패를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패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발명의 왕 에디슨도 만 번이나 실패 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실패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광주리에 넣었고 구원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끈 설명이 불필요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 3.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하라

(신명기 33장 / 개역개정)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사야 46장 / 개역개정)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 3.1. 겸손히 하나님의 광주리로 들어가라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광주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광주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광주리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움 끄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안해서 무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가 광주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리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허공에 매달리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겠는가?

모세가 갈대 상자(테바)에 들어간 것과 노아가 방주(테바)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 3.2. 친구를 위하여 광주리의 밧줄을 붙잡으라

사도바울의 광주리 밧줄을 붙잡아 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광주리는 이름도 모르는 동역자 밧줄을 잡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사도바울을 탈출시켜 준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밧줄을 잡아 준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바로 밧줄을 잡아 준 손이 됩니다.

### ○ 결 론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외부로부터도 내부의 압박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광주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광주리의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5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1 : 가시 때문에 아프십니까? (고후12:7~10)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는 강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과 관련 전설이 있습니다. 첫 용사가 가장 미약한 모기에 켜서 결국 미쳐 죽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 ☞ 니므롯과 모기의 전설

구약성경 10장 8절에 나오는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에 대한 전설이 있다. 그는 힘이 무척 썩 용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힘이 세다면 내가 창조한 것 중 가장 미약한 모기와 싸워 보라 하였다. 그러자 모기가 니므롯의 코를 통해 뇌에 들어가 이명현상으로 결국 니므롯은 미쳐버렸고 미쳐서 죽었다

사도바울의 육체에 가시, 약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도바울의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력, 간질,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기술이 없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가시가 무엇인지 기록되었다면 가시보다 그 병명에 치중하여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시의 교훈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왜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전 반부에서 영적으로 최고봉을 경험했음을 고백한 후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최고봉과 가시는 모두 고린도후서 12장 한 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어디서 더 받는가 영적 최고봉 or 가시 가시에서 입니다.

## ○ 본 론

### 1. 가시로부터 오는 고통 ⇨ 하나님께서 가시를 선으로 바꾸신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시로부터는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다고 본문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냐고 ...그러나 가시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의 가시를 허용하시되 생명은 해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사탄에게 죽일 권한은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욥은 사탄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견뎠고 하나님은 가시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기에 가시를 통해서도 치료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가시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습니다. 가시가 가시 하나로만 보면 분명 아픔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배로 건조될 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가시 하나하나를 분명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 2. 가시 경험의 유익

#### 2.1. 교만하지 않게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 개역개정)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가시 경험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사도바울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다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인 고백이 겸손입니다.

알렉스 헤일러와 거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인데 헤일러는 그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겸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북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기둥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누군가 올려놓았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왜 겸손하게 하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 2.2. 기도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 개역개정)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둘째 기도하게 합니다. 사도바울은 가시 제거를 위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응답되지 않았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 2.3. 은혜를 의존하게 한다. (고후 12:9)

셋째 은혜를 의존하게 합니다. 가시는 은혜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였고, 사도바울은 가시(약함)를 기뻐했습니다.

### 3. 은혜와 능력

(고린도후서 12장 / 개역개정)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물질이나 영향력 등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데서 능력이 온다고 합니다.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온다고 합니다.

#### 3.1. 능력은 약함에서 온다. (고후12:5,9,10)

시저가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의 고백은 이와 대조를 이룹니다. 앞은 시저의 자랑이고 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승리 ⇨ 육지와 바다의 위협

바다를 정복하고 평화 ⇨ 바다에서 4번 파선

2번 환호, 3번 개선행진 ⇨ 5번 채찍, 3번 태장을 맞았다.

큰 도시를 먹였다 ⇨ 굶주렸다.

사나운 짐승들을 죽였다 ⇨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왕들이 나의 호의를 구한다 ⇨ 왕들이 나를 죽이려 찾는다.

시저는 능력이라면 바울은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년이 지난 지금 보면 누가 더 큰 능력자이었는데는가?

단연코 사도바울이 아닌가?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 3.2. 능력은 낮아짐에서 온다. (고후12:1~7)

영적으로 최고봉에서 능력이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능력이 왔습니다.

#### 3.3.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고후12:7~10)

능력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너에게 충분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 ○ 결 론

뇌성마비 장애를 가져 아이들의 놀림을 받던 아이가 다음과 같이 어눌한 표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Jesus loves me I love Jesus”

이 말은 들은 학생들은 눈물의 회개를 했다는 일화가 있다. 약함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에덴동산에는 가시가 없었으나 죄로 인하여 가시가 들어왔고 세상 끝날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이 세상에서 가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월 12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2 : 시험 시간 (고후13:5~10)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 생각하려 합니다. (저는 시험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사관학교 때 거의 매 수업을 마치면 요약 고사 일명 Diary를 본다. 수업이 마칠 무렵 책상을 정리하고 시험문제가 나누어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늘 두렵고 떨렸다. 이 요약 고사가 전체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험 자체에 대해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다.)

여러분은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각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았습시다.

연말이 되어 시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입학시험, 학교 성적평가시험, 취직시험, 진급시험, 운전면허시험, 자격시험 등 등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고 시험은 인생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영역의 시험에 대해 살펴봅시다.

### ○ 본 론

#### 1. 확신 테스트 ⇔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

(고린도후서 13장 5절, 쉬운성경)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시험은 확신 테스트로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다시말해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쉬운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불합격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ἄδοκιμος 아도키모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버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짜, 모조품, 위조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모조품을 말합니다.

믿음은 가짜 모조품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지만,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가짜 믿음의 특징은 “열심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며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주여, 주여”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러한 가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위조지폐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위조지폐는 발각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여러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결국 은행에 들어가면 발각되어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가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결국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 비유의 말씀

◆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 혼인을 하고 신랑의 의무와 신부의 의무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다

◆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죽게 된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 🔍 참고 성경구절을 읽어 보세요

(유다서 1장 / 개역개정)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디모데후서 3장 / 개역개정)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마태복음 7장 / 개역개정)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뺏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1서 5장 / 개역개정)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2. 열매 테스트 ⇨ 나의 행동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5. ...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둘째, 열매 테스트입니다. 열매 테스트는 “나의 행동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버림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열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 2.1. 내적 증거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적 증거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증거입니다.

## 2.2. 외적 증거

(갈라디아서 5장 / 개역개정)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적 증거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평강할 수 있습니다.

## ☞ 장갑예화

장갑이 손에 착용되지 않고 장갑으로만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장갑이라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손에 착용되는 순간 장갑은 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 3. 성경 테스트 ⇨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셋째, 성경 테스트입니다. 성경 테스트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라 이

는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성경 테스트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 말씀이 우리 안에 최종적인 권위인가?
- ◆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 4. 사랑 테스트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넷째, 사랑 테스트입니다. 사랑 테스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역할이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 개역개정)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 ☞ 천국과 지옥의 예화

지옥 : 자기만 먹으려다 결국 먹을 수 없어 굶었다. (이기심)

천국 : 남을 먼저 먹여주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이타심)

동일한 음식을 차려 놓았지만 이기심으로 가득찬 지옥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지만 남을 먼저 배려한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바로 이타적 사랑이다.

## ○ 결 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네 가지 시험의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은 구원 테스트입니다. 불합격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정답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것입니다.

12월 19일 주일

## □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9:2, 11.1, 눅1:26~38)

### ○ 시작하며

지금은 대강절 기간인데 대강절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년 전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이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캄캄한 시대에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 개역개정)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 살펴봅니다.

### ○ 본 론

#### 1.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사야 11장 / 개역개정)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획하셨고, 이미 수백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지배를 받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둘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6개월 후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메시아가 왕궁이나 대제사장이나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러나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본문 31~35)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아멘 했을 때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 메시아의 육신의 모친(성모)이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대를 소망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31.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3.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 말라

### 3.1.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불편하다.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 말라 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내 삶이 엉망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 오셨고, 이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정혼 후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사도바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기독교 선교사역의 획을 긋는 위대한 선교사요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3.2.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내 계획과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내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이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희망이고 번영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건강한 아이를 원하지만 아픈 아이가 태어나고, 실직하고,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믿으라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 4. 마리아의 결단

(누가복음 1장 / 개역개정)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넷째, 마리아의 결단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의 결과는 파혼당하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명예 살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 만이 정답입니다.

#### ○ 결 론

참 빛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나, 상황이 바뀌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평범한 여자 마리아에게 오셨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불편하고 내 계획과 달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할 때 불편함은 은혜가 되고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만이 정답입니다.

12월 26일 주일

## □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3 : 나의 과녁은? (고후13:11~13)

### ○ 시작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빛이 있는데 담고 있는 그릇이 깨질수록 빛이 더 새어 나게 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과녁(목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준하며 살아야 할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습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일단 썩 놓고 맞은 곳이 과녁을 그리며 자신이 명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비웃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살고 나서 살아 온 것이 목표였다고 하는 사람들!

목표를 정확히 맞춘 것같이 보일 수 있으나 목표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녁 즉 목표는 무엇일까?

### ○ 본 론

#### 1. 과녁 1 : 믿음의 성장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

첫 번째 나의 과녁은 믿음의 성장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 개역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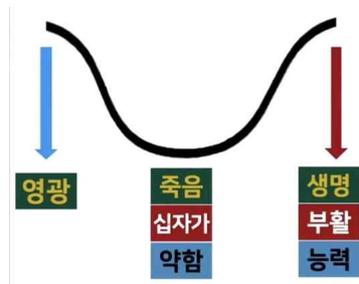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 사도바울이 말한 “온전하게 되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 1.1.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복음의 형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복음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림 참조)



그림은 예수님 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의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약함으로 죽으셨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1.2. 복음의 렌즈로 내 삶을 보라

이와 같은 복음의 렌즈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 1.2.1. 고난을 보라

먼저 복음의 렌즈 즉 복음의 형태로 내 삶의 고난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옥여쌘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렌즈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 약함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능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약함이 있다니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만 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샴페인을 터트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실패인가? 승리인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승리입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1.2.2. 목적을 보라

다음은 복음의 렌즈(관점)로 목적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대사)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 1.2.3. 복음 안에 성장하라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기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복음에 계속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장합니다.

- ◆ 성경을 매일 읽는다.
- ◆ 매일 기도한다.
- ◆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
- ◆ 복음을 전파한다.

## 2. 과녁 2 : 교회의 하나 됨 (마음을 같이하여)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하며 ~

두 번째 과녁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다를 수 있음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 개역개정)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2장 / 개역개정)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3. 과녁 3 : 다른 사람과의 화목 (평안할 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

세 번째 과녁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여 평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로 들리지만, 사실은 네 개의 서로 다른 파트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만약 각 파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거기에는 결단코 우열이 있거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으며 모두가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4. 과녁 4 : 사랑의 삶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 개역개정)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네 번째 과녁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맞춤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의 행위는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 말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에도 입맞춤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 가족 내에서 가족 간에 인사는 입맞춤 인사가 보편적인 인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족 같은 사랑은 식고 현대인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Rent a Friend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 결 론

2022년 과녁은

첫째, 믿음의 성장입니다.

복음의 형태와 같은 삶을 이해하고 이 복음의 렌즈로 고난과 나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다음과 같이 복음에 계속 노출되어야 합니다.

- ◆ 성경을 매일 읽는다.
- ◆ 매일 기도한다.
- ◆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
- ◆ 복음을 전파한다.

둘째,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